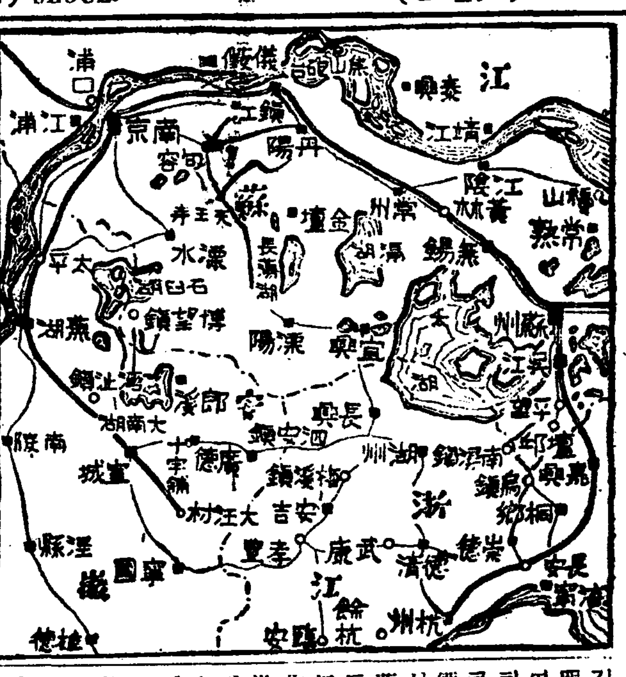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六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三面包圍體勢壓縮
南京의敵軍과對峙
砲聲멀리市內에響傳



【上海五日發同盟】四日夕刻句容市街東方에肉迫한 我軍은 敵陣이動搖하는것을보고 同夜十一時 夜襲을斷行하야 市街의西北端까지닫合에 强行突破하야 五日未明마치내 完全히 句容을 占據하엿는데 南京은句容과 生死를가티한다고까지하는 軍事上의要害로 中央軍練兵場 近代的設備를完備한飛行場과함께 南京防備地로서最後的陣地이다 溧水、句容의陷落으로 南京防禦第一線은 쉬사리도 崩壞하게되어 我軍은漸次三面包圍의態勢를取하고잇서 太湖北을迂回한 我軍은 再次여기서相逢하야 緊密한直接連絡을 保持하면서 南京城의周圍를 團續하山을끼고 南京의敵과 對峙하게되엿다

【上海五日發同盟】句容의敵第三防禦線의 崩壞로 南京의恐慌은 一層 切實化하여젓는데 五日에는 南京市內에 戰線의 接近을생각케하는砲聲이 멀리 東方으로부터 斷續的으로 傳하고잇서 郊外로부터 市中을通過하야 揚子江을건너 對岸으로 避難하는 農民은 끄닐사이가 업는狀態로 거의 空家로된 市街에 團續된敵兵에 警戒에 巡邏에 代身하야 正規兵이 警戒에 當하고잇다 米國大使館에서는 南京危機切迫에鑑하야 殘存한 三十一名에對하야 前番다니까닭로 撤退를 命하얏다 이를 綜合하야보면 首都南京은 落城의 前夜를思케한다

【上海二十日發同盟】外人側南京來電에依하면 五日朝來落雷와가튼砲聲이 南京市內에 隱隱히울리여와서正午에 이르기까지 斷續하고잇다 日本軍의 最前線은南京東北四十粁地點에肉迫한듯하다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六日正午發表

麒麟山脈을넘어 前進하고잇는 我部隊는五日午後三時句容의北方地區及 栗馬鎭(南京東南方約二十粁)을 通過하야 敗退하는敵을 追擊하는中인데 南京에對한 我包圍圈은 漸次縮되고잇다

頑强한敵軍과 激烈한山岳戰

【廣德五日發同盟】東谷으로南하야一路進擊을 繼續하는 我軍은 五日夕刻頭龍山에 殺到하엿다敵은 天險을利用하야 頑强히抵抗하야激烈한山岳戰이 展開되엿다

土橋、吳家에到達
南京까지不過三十粁

【句容에서六日同盟特派員發】句容의堅陣을 突破하고 戒岡頭를 經하야 南京으로 向하야 殺進中인 我先頭部隊는 大華山山脈을 右로보며 六日午前十一時頃 土橋鎭에 達하엿다 일로부터 南京까지는 三十粁이다 그런데 土橋鎭은 南京北方正回道路와直線道路의分岐點에잇서 南京防備의 重要要害이다

【溧陽에서六日同盟特派員發】溧水로부터 南京에 肉迫한 ○○部隊는 烏山鎭으로부터 山道를突破、强行軍을 繼續하야 六日午前九時지나 吳家에 突入하엿다 吳家로부터 南京까지의 距離는 三十五粁이다

南京陷落압두고 抵抗? 妥協?

【上海五日發同盟】蔣介石、트라우트만獨大使會談은 五日朝來支那各紙에 大大的으로 取扱되여 一般支那人의 關心이큰것을 反映하고잇는데 一方狂稱彼가 漢口에서行한演說과가튼것은 前線將士에對한、後方國民의責務를强調하는同時에 國民이果然前線將士의期待에副할수잇슬지 여부點을 드러 國民의反省을 促하고 暗히停戰實現을暗示한 事實이잇다 그러나 요즘南京을焦土로 化하라는 徹底的抗戰論이 表面에橫行하고잇스나 他面에는 抵抗에 嫌症이난 風潮도 漸次顯著하여저서 南京陷落을아페두고 獨逸의調停出馬를 契機로 抵抗繼續이냐 和平妥協이냐하는問題로 支那各階級은 頭痛을알코잇다

敵汽船二隻爆沈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午後一時半發表=敗退하는 敵兵으로 蕪湖附近에 蝟集한者數萬에 達하야 船舶에依하야 對岸에移動中임을 十二月五日正午 이에 爆擊을 加하여 千噸級의汽船二隻을 爆沈시켯다

宣城陷落在邇

【廣德에서六日同盟特派員發】宣城으로向하야 前進中인 我軍은 五日夕刻頭龍山의 頂上에서 進路를阻止하려고 必死的抵抗을하는殘敵과 猛烈히 山地戰을交한後 이를擊退하고 六日早曉山間에轉하는感激의 萬歲와함께 山頂에 日章旗를飜揚하고 또汪家山을占領、目下溪陵橋의 敵에肉迫하고잇다 여에依하야 宣城까지는 겨우三粁에不過하야 宣城의陷落도 今日中이라고觀測된다

長驅蘭州空襲
敵機十四臺粉碎

【東京電話同盟】大本營海軍報道部五日午後二時公表=我海軍航空隊○○機는 十二月四日午後一時 長驅甘肅省 蘭州飛行場을 急襲하야 兵舍及大型機四機(四發動機裝備) 小型機十機를 粉碎하고 小型戰機를 損傷케한後 上昇해온 戰鬪機(E十六型)二機를 擊退하고 全機無事히 歸還하엿다 그런데 蘭州에잇는 飛行機는全部蘇聯製인것을 確認하엿다

佛波兩國外相 非公式會談

【왈소五日發同盟】왈소訪問의佛國外相델보氏는 五日午後 波蘭外相베크氏와 非公式會談을 續行하고 다음 왈소駐劄의 英、蘇兩大使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兩公使의 訪問을받고 人事를 交換하엿다 夜에는 佛國大使館에서 델보外相主催의 晩餐會가잇슬터인데 여에는 베크外相以下 波蘭의 軍政高官이 全部主席하야 佛波交驩을 盛大히할터이다 六日은 베크外相과 午餐을함께한後 相携하야 크라코우에 赴할터인데 同所에서는 델보、베크會談이 續行될것이라고觀測된다

植民地問題提議 波政府側否定

【왈소五日發同盟】目下進行中의 佛波會談에서 波蘭外相베크氏가 植民地問題를提議할것이라 傳하야 多大한 注目을 喚起하엿는데 波蘭政府側은 五日右報道를 否定하고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波蘭外相베크氏가 델보外相과의 會談에서 植民地問題를提議한 事實은 업다 델보外相이 伯林을 訪問한때 노이라트獨逸外相이 訪問한데對하야 여러가지風說이돌고잇는듯한데 同訪問은全然노이라트氏의 自發的意思에 基한것으로 外相에 對하야 東、中歐旅行의 途上 伯林訪問을 要請하엿다는 說은 全然不當하다

「日本撤兵치안는以上 和議絶對不可能」
蔣介石、駐支獨大使와의會見內容에對한
漢口外交部發表

【上海五日發同盟】去二日南京에서 蔣介石과 重大會見을 遂한 駐支獨逸大使트라우트만氏는 外交部次長 徐謨와同道 四日漢口에 歸還하야 徐謨는 卽時同地外交部에서王寵惠部長에 詳細를報告하엿다 外交部發言者는 五日午後漢口外交部에잇서서의 共同會見에서 右에關하야 記者團에對하야大要左와如히發表하엿다

獨逸大使트라우트만氏는 去二日南京에到着하는同時에卽時蔣介石과 會見하고 徐謨次長의 通譯으로 約一時間半동안 意見交換을 遂하엿다 右會見에서 트라우트만氏는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獨逸政府로서는 日支雙方이同意한다면 調停에 出馬할用意가잇다는旨를 蔣介石에傳하엿는데 蔣介石은獨逸政府의 好意를 深謝하나 支那로서는 侵略中의 日本軍이 支那領土로부터 撤退치안는以上 和議의會談는 絶對로 不可能하다는 旨를回答하고 또日本이 侵略을 持續하는以上 支那는 어데까지던지抵抗을 徹底的으로 行할 決意를가젓다고 答하엿다

獨逸調停工作
近近再次表面化

【上海五日發同盟】駐支獨逸大使트라우트만氏와 蔣介石의 會見에關한 漢口外交部의 發表는 旣報와가티 日本軍의 撤退를 和議의 前提로하는 强硬한 蔣介石의 回答으로 獨逸의 調停出馬工作은 全然頓挫한感을 與하엿스나 事實은 이에反하야 蔣介石은 獨逸의好意를 深謝하는同時에 日本側을 牽抑하는 意味에서 獨逸政府에 今後의 斡旋繼續을 要望한것이라 信憑된다따라서 近近다른機會에 獨逸側의 工作이 某種形式으로 再次表面化할것이라고 豫想된다

近衛首相參內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六日午後二時 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一般政務에 對하야 奏上、여러가지 御下問에 奉答한後 退下하엿다

時事解說
講和

어떠한 戰爭이나 大槪 그 終幕은 講和로써 끗나니 互相의 代表가 모여서 講和에 對한것을 論議하는것을 講和談判이라고하고 그結果 互相間 條約을 締結하는것을 講和條約이라고 한다。그順序로 보면 흔히第三國의 斡旋으로 講和談判이 열리어 거기서講和條約을 約定하고 講和條約을 [illegible]하는것이매 講和가 열리기前 斡旋하는第三國에하야 講和條件의 大綱目이 提示되는 수도 업지안타。講和豫備條約도 한 正式의 條約으로서 批准交換을行하는것이어요 講和條約의 效力은 國內法에 따르는 것은 아니 國家元首의 權限에 屬한다。方式은 一定치안하나 實際上 口頭보담 書面을 使用하고 잇다。

×

戰爭終了의 時期는 [illegible] 條約實施力發生의 時期다。條約中 그時期를 明記치 안흘 때는 批准交換의 時期로부터 發生한다。그러나 엇던學者는 法家의 國家行爲는 좀 다르다。그리國家에서는 一旦 批准된以後는 原則으로서 그實效力은 調印時로부터 發生되는것이라고 規定한다。何如튼 講和條約이 效力을 發生하는 때로부터 平和關係는 回復되야 戰時만의 適法行爲는 不適法이되는 것이다。딸아서外交使節의 往來도 勿論이요 人民間의 交通關係도 回復되는것이다。그러나 講和條約에規定된바를 履行하기에까지는 自然히 互相間 [illegible]을 맷지 안해서는 안될것이다。그럼으로 그履行을 擔保하기 爲하야 保證에 依하야는 土地의 占領을 行하는 일도 업지 안타。

前番上海事變과 가튼 때는 日支直接의 交涉으로 互相協定에 끄치엿스나 今番 支那事變은 그 規模에 잇서 決코 上海事變의 比가 아니다。벌서부터 獨逸의調停說이잇게 되니와 正式의 宣戰布告는 업섯다고 하더라도 一定한 講和條約의 締結이 업지 안할까 생각한다。(×)

皇太后陛下 多摩陵御參拜

【東京電話同盟】皇太后陛下께압서는 來二十五日大正天皇祭를압두시압고 六日午前十時半 大宮御所를御出門 同四十五分原宿驛御發車 同十一時四十五分 東淺川驛御着 多摩陵에 行啓 杉溪諸陵頭 古河陵墓監等 奉迎御先導로 먼저御拜所에 御參進 恭遜히 御參拜 大正天皇의 御實績을 御祈念하압시는 同時 皇軍將兵의武運長久를 御祈念하압시고 午後零時五十五分 東淺川驛御發車 同一時五十五分原宿御着 還啓하압시엿다

政府의聲明에呼應
總督도重要聲明
南京陷落을期待하고

頑强한 支那軍의 抵抗도 皇軍進擊아페는 쉬사리 擊破되여 首都南京의 陷落도 바야흐로 時間問題로되엿는데 이劃期的戰捷에際하야 總督府에서는 半島民衆의 深甚한 祝意와함께 今後에 覺悟할것을 明示하게되여 南總督은 六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密室에 大竹內務、三橋警務兩局長、官房各課長、富田陸軍御用掛等을 招集하고 富田御用掛로부터 戰況의說明을 聽取한後 南京陷落에際하야 帝國政府가今次事變의 目的을達成하기까지는 어데까지던지 各種盲動策動을排擊하려하는 斷乎한 決意를 表明할터인으로 이와同時에 南總督도 半島民衆에對하야 所信을披瀝하야 銃後半島의陣容을 堅固히하고 益益擧國一致의 實을擧하도록 重要聲明을發할터이라는데 이에對하야 [illegible]하는바이잇다 (寫眞은 南總督)

駐支獨逸大使
蔣介石에進言

【上海五日發同盟】駐支獨逸大使트라우트만氏의 廬山訪問과 蔣方面의伯林에잇서서의 獨逸最高首腦와의 折衝은 現下日支交戰局面을 轉換하기爲한 初期的工作이라하는데 四日漢口로부터還來한 支那電報에 依하면 同地官界의 消息이라하야 獨逸大使의 廬山訪問은 伯林政府의意向을體하야 日支停戰工作에 出馬한것이나 但蔣은 蔣介石에停戰問題에對하야는 第三者와의 重大條件을 提示하야 回答하엿다 그러나 勿論和平回復을希望하는것이 아니라 트라우트만大使의 調停에 應하는것은 아니라 出馬에對하야 이와協議하는것도 獨逸側에에는 疑懼을가젓스나 一般民衆抗日團體 사베트及 中國共產黨의 代表者等은 蔣介石에 徹底的抗戰과 調停拒否를 要求하고잇다한다 (寫眞은 트라우트만氏)

蒙疆自治聯合會 着着秕政을改善

【張家口六日發同盟】歡迎防共聯合의 一環으로 大蒙古高原에 虹驗의 光輝이는 蒙疆自治聯合委員會는 創業發來 아직日淺하나 察南、晉北、蒙古聯盟의 各自治政府의 重要政務를 統轄하야 金融、產業、交通等各般에 亘하야 調查를 行하는同時에 南京政府의 秕政을着着改善하야 政府新에 努力하야 七百萬民衆의 翕然한輿望을負하고잇서 全支那에 對하야 治安의確立하야 自治政府의 正體를 보게되엿다 어에依하야 蒙疆地區는 無盡藏한 天然資源을가지고 洋洋한將來를 胚孕하야 東亞에 黎明의 曙光을 번득이기 始作하엿다

▲治安 察南(十縣)晉北(十三縣)蒙古聯盟各種을 通하야 金蒙疆의 治安工作은 着着進捗되고잇서 察南、晉北、平綏兩地區의 匪賊을 除하고서는 거의匪影을 볼수 업는데 어 不良治安地帶도 ○○部隊의 討匪工作에依하야 近近平和鄕으로 歸케될것이라고보인다

▲金融 蒙疆地區의 金融工作은 七百萬民衆의 經濟生活으로 가장努力하는바로 全民衆의 經濟生活의 安定과 日滿蒙通貨의 聯結成을爲하야 蒙疆自治委員會成立後 卽時 察南農永、綏遠平市、實業局의 三銀行을合倂하야 새로資本金一千二百萬圓의 蒙疆銀行을 設立하기로 決定하고 十二月一日 正式으로 設立되게되여 玆에 蒙疆全地區에 亘한 幣制統一의 劃期的事業이 完成된것이다 去十月一日 通貨防衛令이 施行된以來 僅二十日로 金本位制가 實現되게되고 日滿蒙通貨에 直結되는 時日인데 全蒙疆에 瞭更的幣制統一이 完成케되엿다 蒙疆銀行의 現在發券高는 千萬圓을 超過하엿는데 이에對한 準備는 八百萬圓을 不下한다는 堅實性을 示하엿다 그리고蒙疆地區는 京津地方에對하야 年年受取超過에 잇는 經濟事情으로보아 識者가 憂慮하는 積極的權力的金融工作에 依하야 金融市場의 破壞的現象이 秋毫도惹起되지안흔것은 注目할價値가잇다 이圓에『링크』함으로써 京津通貨市場에 對한 [illegible]은 行하지안흠으로 [illegible] 念慮가잇스나 이것도經濟事情을 몰르는杞憂이라는것이 證明되엿다

▲產業 產業資源으로보면 北支에잇서蒙疆地區가 占하는 地位는 絶對的으로 優越權을 가지고잇서鐵石炭 羊毛 阿片 雜穀 岩鹽等이 이地區에잇는 特產物인데 河北山東方面의 地位에 比하면 오히려前者가 生產地이오 後者가 集散地이라는것이 肯定된다(繼續)

유고政府 英米記者退去命令

【벨그라드五日發同盟】유고슬라비아政府는 로이텔通信及뉴-욕헤랄드·트리분紙特派員하리슨氏에 對하야 二日以內로 國外退去를 命하고 五日政府機關인 아바스通信社를 通하야 그旨를 公表하엿다 하리슨氏는 벨그라드에 十七年間居住하야 유고슬라비아의 英米俱樂部副會長으로잇는有力者인데 去七月以來同氏를 追放하라는 소리가各方面에이러나스토야데노비치首相의好意로 今月까지 延期하여온것이다 退去命令의理由는 하리슨氏의 通信이 『傾向的이오 事實을 歪曲하엿다』고하는데 잇다한다

高周波重工業 各工場增產計畫

日本高周波重工業에서는 最近의 時局情勢로 特殊鋼의需要增加로 去益不可避함에 鑑하야 增產의 必要에切迫되어 擴張計畫을 樹立코잇는데 如左히各工場의 增產을하기로되엿다

▲東京北品川工場 鑄鋼製品이며 主로하고 現在의能力의三倍로 工場을擴大할豫定

▲富山工場 擴張地二萬坪을買收하고 從來砂鐵處理에서 製鋼一貫作業을實行하고 炭素鋼을主要製品으로함

▲城津工場 現在一萬六千噸의製造能力인데 새로히 一萬五千킬로의 電力을獲得하야 四萬噸의 增產豫定

宣城一角占領

【十字鋪六日同盟特派員發至急報】六日正午頃 藤田戰車隊는 宣城의 一角에 突入하엿다

海峽植民地政廳 日貨大排斥案

【新嘉坡三日發同盟】英領海峽植民地政廳은 木綿과人絹以外에衣類內衣等에對하야 配當制를 決定하고 來十五日에 海峽植民地立法會議에 上程하야 法令으로서 公布하게되엿다 右配當은 日本製品에對하야非常한制限이되고 特히一九三五一三六年中의 輸入業者는 一切로不認하는等 日貨排斥의 色彩가濃厚하야 그前途는 憂慮된다

米陸軍參謀長
裝備强化를要望

【華盛頓五日發同盟】米陸軍參謀總長 크레그將軍은 五日議會에 對하야 年次報告內容을 發表하엿는데 其中에 米陸軍의 裝備强化를 要望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西班牙及支那에잇서서의 軍事行動은 新式武器를試驗하는好個의舞臺로되엿는데 그結果戰車及飛行機의 役割이 明白히되엿다 卽此等武器는 陸上戰鬪에 決定的役割을 演하는것이아니오 步兵의作戰에對하야有效한 補助作用을함에 不過하다 그러나米國陸軍의現狀은新式武器가 不足不備함으로各聯隊의 高射砲戰車砲를增加하고 또口徑五十미리以上의 機關銃을 增加하야 高射砲를 補助할必要가잇다 또現役常備兵總數十六萬五千의 定員은恒常維持할必要가잇다

人事·集會

▲有地中將(新任鎭海要港部司令官)着任入來事明七日午前八時京城驛着列車로入城南總督 小磯軍司令官을 訪問하고 朝鮮호텔에一泊한後 八日午前十時四十五分發 露任할터이다

▲松澤龍雄氏(總督府外務部長)滿洲、北支出張中 來九日午後二時三十二分京城驛着歸任豫定

▲西村眞太郞氏(總督府通譯官)南朝鮮地方出張中六日朝京城驛着歸任

▲原口啓之助大佐(龍山師團參謀長)今回○○部隊長에榮轉 八日午後三時二十三分 龍山驛發赴任

▲清原弘氏(專賣局製造課長)滿洲視察中三日遞信四日飛行機로渡東

▲李鎬石氏 五日 府內貫鐵町四番地自宅에서 遭父親喪

八面鋒

◇南京의 最後防備陣 鎭江、句容、溧水中 句容、溧水가陷落。

◇南京까지는 不過 四十粁、百里라니 南京陷落도 目睫之間。

◇南京陷落後도 如前이 抵抗할런인가、城下之盟을 帝하야 日本과 和親을 請할런인가。

◇消息通의 말에 依하면 南京政府는 그때도 表面上은降伏치 안흐리라 하거니와

◇그리되면 第三國의 調停出馬가 一層 有力하게 움직일듯。

◇秋收期가 되니 到處에서米穀檢查에 對한 不平이 相當。

◇日 一郡서 他郡가는데도 檢查니 移搬이 困難。

◇日 一石 九十一斤이 標準인데、九十四·五斤을너야 檢查가 쉽고

◇日 共同販賣에 指定商人을 두엇기 때문에 他商에게 有利하게 팔수가 업스며

◇日 檢查가 느서서 제때에 팔수가 업스니

◇日 檢查員이나 農會員이不親切하야 견딜수업다고。

◇어러고야 農民을 爲한 檢查 共販이라할가。

樂譜 世界童謠曲集 伊太利名曲集 安基永作曲集 京城 [illegible]

流行歌 薔薇色嘆息 포리도-루

朝報案內 貸家 [illegible]

社員招聘 慶北、慶南、全南各地ニ常置社員數名ヲ求ム 希望者ハ履歷書ヲ送付セラレタシ 釜山府富平町 日清生命釜山出張所

自動車 收縮規則新版賣出 朝鮮總督府認可 京城府太平通二丁目

工場賣却 農具、鋼鐵、木工、家具等 [illegible] 京城府 [illegible] 朴政煥

電話變更 電話光三三九六 京城府貫鐵町三三九 汝山旅館 主 洪鳳植 白

우리말본 全 延禧專門學校敎授 崔鉉培著 朝光送年號發賣中

한글의바른길 崔鉉培著 發賣所 東光堂書店

東邦旅館 設備最新、場所淸閑 交通至便、客室廣潤 京城府觀水町

リード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이 八升의菓子가된다 釜山府 坂野製作所

內臟外科·傷害外科 金晟鎭外科医院 醫學博士 金晟鎭 京城府 電話光化門

京城金弘璿大科醫院

客陣大セイコウシヤの躍進よ見 カタログ 景品 同業者整理品引受處分大特賣中 世界的標準時計 瑞西製 ウオルサム 高級懷中 高級腕卷 流線型 最新 テーラスト·パンタ 大分配 中郵便 切手參錢同封御申込次第直に御送附申上ます 五圓以上品御注文の方へ弊社發賣のTM萬年筆正價壹圓八十錢の品一本宛もれなく進呈す 注文方法 代引註文ハ内金トシテ註文ノ三割以上御送金願マス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ノ十六 セイコウシヤ營業所 振替口座東京一五七九四一番

マラソン王 마라손 기운이나는 滋養菓子 一個五錢 各地菓子店에잇소 豊國製菓株式會社

四百六十個普校에 七十萬圓을補助

滿洲國治外法權撤廢後에 當局의在滿同胞教育補助

지난일일부터 만주국(滿洲國)에 대한 치외법권이 철폐됨에따라 재만동포교육기관도 전부 만주국에 이양하기로 되엿는데 현재 만주에잇는 조선인교육기관은 보통학교 사백륙십이교로그 수용아동은 삼만이천여명이다 이사백륙십여교는 종래의 간의 총독부보조를 바더가지고 각민회(民會)에서 경영하야 오든것인데 이번 만주국에 의하야 명년도에 약칠십여만원(아동한명에 약칠원)의 예산을 계상하야 만주국정부에 보조하기로 되엿는데 이것은 위선이양한 첫해이므로 별도리업시 막대한예산을 보조하거니와 다음해부터는 만주국정부와 다시 협정하야 신기축을 세우도록 할려어리라하며 이제 이양재일년의 재만동포교육기관 즉보통학교의 경영비용처와 그부담금액을 조사하면 예외하면다음과갓다

朝鮮總督府補助	七十二萬圓
滿洲國政府支出	九十二萬圓
朝鮮人民會支出	三十一萬圓
計	一百九十五萬圓(兒童一人當平均十九圓五十錢)

今後一切經費는 當然滿洲國에서支出

卒業後上級學校就學이問題 當局도建設費考慮

재만조선교육기관 즉사백륙십 이보통학교를 저난일일부터 만주국에 이양함에의한 명년도총독부의 보조는 별항과 갓거니와 이것은 이양한지 첫해이므로 로톡어 그만한 예산을계상하얏거니와 그다음해부터는 만주국정부와 협정하야 재만조선인 교육비를 전부만주국에서 부담하도록 총독부에서는 준비중이라한다 이것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만주국에 일단이양한이상 그경비도 부담하는것이 당연할뿐아니라 재만내선인은 만주국구성분자(構成分子)인 정치적의 당미로보드래도 부담하는것이 당연한것이므로 만주국에서도 명실함께 양수할용의를 가지고잇는동시에 그방침도 대개서잇는 모양이며 재만조선인교육기관은 현재 초등학교뿐이므로 졸업아동의 상급학교입학이 비상히 곤난하게되는 형편이다 그리하야 만주국에서는 장차 조선인중등교육기관을 설치하야 상급의교입학희망아동을 위선구급하도록 할계획이라는데 이중등교육기관 시설에대하야는 총독부에서도 그건설비로 상당한 예산의 보조를할모양이다

英長距離編隊飛行 三機「발렛타」에到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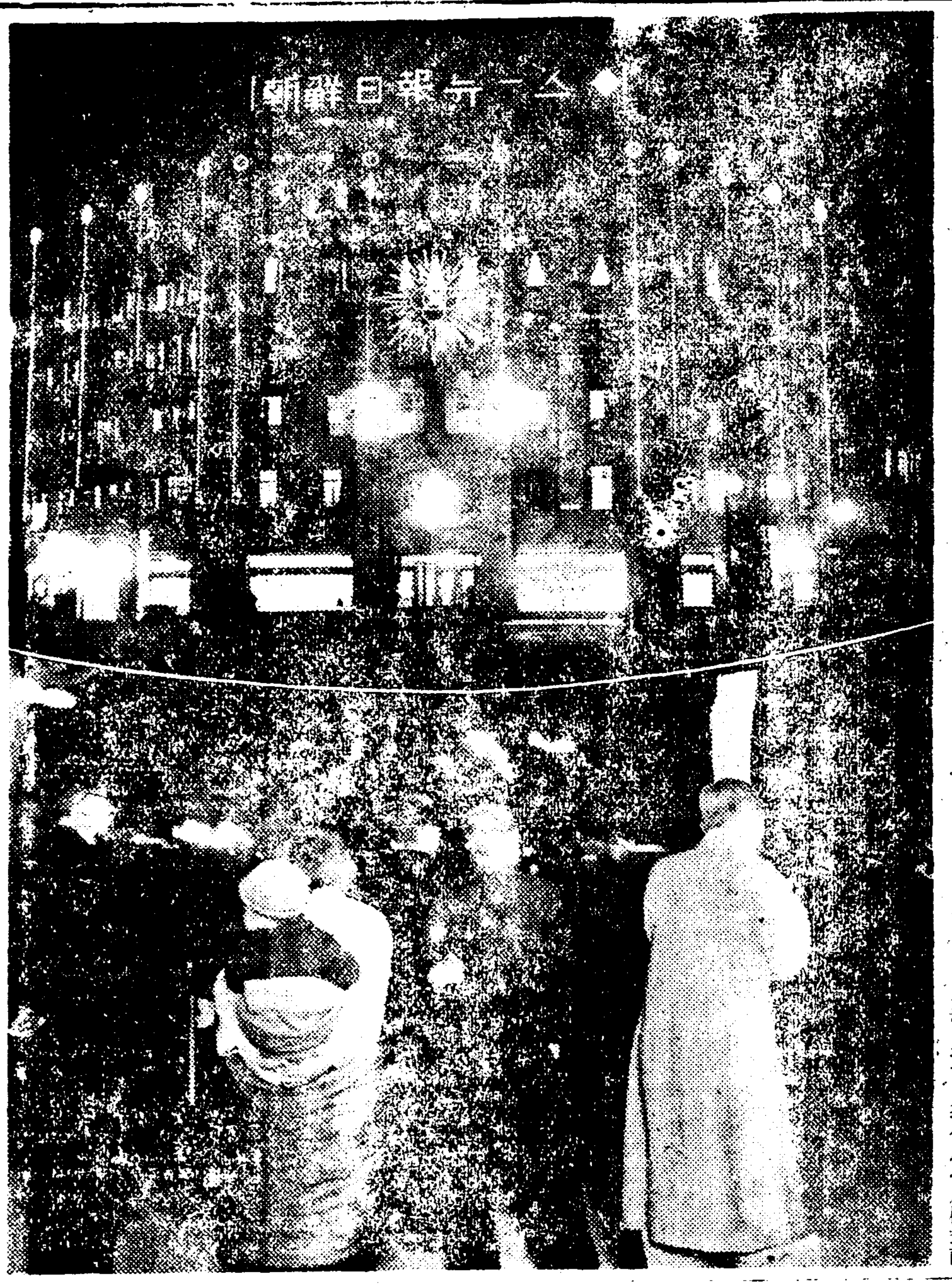
【발렛타一日發同盟】 영국(英國)공군의 정예비행기 편대는 이일 「푸리마쓰」를 출발하야 영본국호주(濠州)간장거리편대비행의장도에 올랏는데도중 「말세이유」에 두대를남기고 세대만은 삼일지중해(地中海)「말다」섬 「발렛타」에 도착하얏다 또한 「말세이유」에 남은 비행기도 기체점검을 마친후에 비행을 계속할예정이라고한다

故鄭鳳時氏永訣式 七日午後二時擧行

경학원대제학(經學院大提學)정봉시(鄭鳳時)씨의 ... 칠일오후두시부터 부내락원정(樂園町)자택에서 거행될터인데 식장에는 남총독(南總督)도 참석하야 조의를표할터이라한다

列車와트럭이衝突 死傷者四名 五日午前平元線서

【舍人支局發】 지난오일오전아홉시 이십칠분경 평남순천군 사인면 봉학리(順川郡舍人面鳳鶴里)에서는 달니는 급행렬차와화물자동차가 충돌되여 네명의사상자를내인 끔찍한 교통참화가 잇섯다 ——만포선(滿浦線)강계행(江界行)화물렬차가 오일오전구시십분 사인장(舍人場)역을출발하야 봉학역(鳳鶴驛)을지나일키로지점 "후미끼리"에 이르럿든 구시이십분경 사인시(舍人市)김영일(金永日)(三○)군이 운전하야 자산(慈山)으로 달니든 사인시 기린자동차 상회(麒麟自動車商會) 소유 화물자동차 평남제이천이십삼호가 측면충돌되엿다는바 차체는 륙칠간밧기로 떠러지는동시 운전수영일(永日)군은 즉사되고 동승햇든 본사사인지국 집금원 라명하(羅明夏)(三○)군은 중상을입어 방금생명이 위급한중이다 그밧게 조수김계하(金桂夏)(二○)군은중상 그리고 리기완(李基完)(二○)은경상을 입엇는데 모두네명의 사상을내고차체는 산산히 부서저서 보기에 참혹한광경이엿다는데 즉시 평원당국과 순천경찰서에서는 현장에 급행하여 원인기타를조사하는일방 중경상자들의 응급수당을가하고 잇는중이라고한다



戰勝안풀레前奏曲! 株式騰勢·連日連爆

鐘紡株의今日二十圓暴騰을筆頭로 爆笑와憂鬱·交響된株式街

남경(南京)이 함락되는것도 얼마아니남앗다는관이다 전승기분은 여곳저곳에 벌서나타나고잇거니와 특히 주식시장(株式市場)의 련일련등(連日連騰)으로줄곳 뒤끌는장면은 참으로 새로히 마슬 인플레의봄을 미리부러보이는 명랑일색(明朗一色)이다 도라다보건대 지난팔월 지나사변(支那事變)이돌발하자 일반이밧게된 동요는 물론이어니와 일반경제계에는 더욱수업는두려움을주게되엿고 특히 주식시장에는 오래동안 인플레경기를 살줄만 알든관이라 공포적투물(恐怖的投物)이소다서 한거번에 늘이문허지듯한 큰폭락을보이고 그후연달아서 두서너달동안 것잡을수업는 락조(落潮)로 참락(慘落)에참락을 거듭하엿든것이다 이리하야 바다모르는 시세라고 일컷는 극단한비관에빠저 그후의 련전련승의보도를 보고도 혹은 외교문제(外交問題)를 염녀하고 혹은내정문제(內政問題)를 근심하며 또는 사변이 오래끄리라고 비관하야 떠러진시세는 회복될줄을 모르고 시장은 극도로 한산하고 침체되엇든것이 상해(上海)점령후 동신주(東新株)를 중심으로 조금식 회복되기시작하야 지난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르기시작한것이 독일(獨逸)의 조정에난 ... 선다고 전하고 남경함락이다음 놀아치에는 종신주(鐘新株)가사 순간이라고 전하야 인끼는뚝채 이 물론듯 끌어올라 마치어오 번때 떠러지곳에서 백원돌을회복하야 이백구십삼원(二百九十 ...) 삼백륙원대를 보이고 동신주(東新)는 ... 사상최고를 ... 종로시세는 노름판이아니다 ... (사진은주식시장)

長安밤거리를興奮케한 朝鮮日報의電光뉴—쓰

네온싸인과 령란(鈴蘭)이 물결치고잇는 도회의밤거리를헤치고 단연현대과학문명의 첨단을 밟아찬연하게 데뷰한 본사전광(電光)뉴—쓰야가쫏 보통사과로네거리 신축회신(和信)빌딩칠층옥상에서 오일밤부터 개시하엿다 여가는야간 통신발표는 선진도시에서도 최근에고안된방법으로 물론조선서는 이것으로처음이동시에 장소로창안 범거리의접창인 종로 네거리이지라 어느밤에 여섯시정각에 화신칠층옥상에서 「조선일보뉴—스」라는 전광이찬연하게 번득이자 네거리를지나든 행인들과 치위를 무릅쓰고 일부러 이밤의 뉴—스를 보겟다고 몰려나온군중들로 종로일대는 대호잡을 이루어 영하 십여도되는 밤거리를 긴박한상해전선(上海戰線)뉴—스로 충분케하엿다 아교로도 매일시내 석간과조간사이에 긴급한 중간뉴—스를 발표하게될터로 이로써 단연서울품이 한가지 더 생겨젓다 (사진은전광뉴—스의광경)

孝誠은藝術의紐帶

滯歐四年間修業 歸鄕하는安柄昭君!

慈堂患報를接하고不時出發 來月廿二日神戶着

부자유한 다리하나를가진천재적소년제금가 안병소(安柄昭)군이 사년전에 세계적대성의큰뜻을품고 멀리구라파로 음악수업의 길을떠난것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새롭거니와그동안 이태리(伊太利)와 독일(獨逸)불란서(佛蘭西)등 구라파 각음악도시에서 독실한 수업과 연구를쌋흔다음 발서 그곳에서도 제금가로서 일가를 이루어 금년부터는 압흐로 면해라도 음악으로서그곳에 자리를 잡을수잇게쯤되엿섯는데 이번에 갑작히 안군의 자당의 병환이 무거웁다는 편지가 안군에게 전달되자 효성에넘치는 안군은 드디여 귀국의결의를하고 지난달십륙일에파리(巴里)를떠나 귀국의길에 올으게되여 명년정월 이십이일에 신호항(神戶港)에 도착한다는소식이 루일 그의 선배인 리인선(李寅善)씨에게 왓다 그전날곰바란 얼골의 소년 제금가안군은 이제 명실아케당당한 세계적청년 제금가가 되어 금의환향을 하게 되엿는데 그동안 안군은 비단그곳에서 음악수업에만 열중하엿슬뿐아니라그의 어머니에 대하야 가진효성을다해오든것이 예술가로서한결입나는 정으로서 이번의 귀국도 오로지 그의효심에서 결국된것이라한다 특히리인선씨에게 어머니의 신변에대하야 여러가지로 념녀를부탁하야한시를 안연하지안는모양은 안군을 자랑삼는 우리들로 하여곰 한층더감격하게 하는것이어서 일반은이아름다운 마음과 뛰여난재조의 제금가 안병소군의 귀국을깃붐과 감사로서 고대하고잇스며 아울러 안군귀국후의 우리악단에 큰기대는 명년지초의 단용이 떼두고 괜치의 가슴을조리게하고잇다 (사진은 안병소씨)

時局을利用 奸商을檢擧

毒瓦斯防毒器抑賣

년말경기에 시국을 리용하는 상배가발호하고잇스니 일반가정은 특히주의하시요— 시국을리용하는 이런상인의발호에대하여서는 저간경찰국으로부터 전조선경찰서에 그취체를엄중히하도록 엄명한바 잇섯스나 아즉도 이런행위가 다시대두하야 일반가정의주의를 남용케하고잇다 닷세님밤에 본정서에 부내락원정(樂園町)고키나인 료리점에 모제약회사외교원이란 자가와서 독와사방독기(毒瓦斯防毒器)란것을 올애노코 경찰의명령으로 음식점이나 려관에서는 전부사기로되엿스니 사라고 강요를하다가 주인에게 그의를당하고 도라간사실이 잇엇다한다

培材崔君遠覇 男子卓球戰에

第十八回全朝鮮卓球大會 男子部戰은 五日午前十時부터 府民舘에서 百六名選手가 參加한 가운데 擧行되여 決勝에 드러가 昨年度 優勝者 崔根恒君(培材)이 全成鎭君(總督府)을三對一로 擊破하야 再霸하엿다

◇第四回戰
柴田(道商)3—1金錫夏(培材)
吳萬根(道商)3—0朴炳彧(培商)
李在雨(總府)3—2周□□(普專)
金相赫(普專)3—1金義□(□□)
全成鎭(總府)3—0張□□(雅俱)

◇準準決勝
吳萬根(道商)棄柴田(道商)
崔根恒(培材)3—0李在雨(總府)
全成鎭(總府)3—0金相赫(普專)
高摩須(普專)3—0片□(道商)

◇準決勝
崔根恒(培材)3—1吳萬根(道商)
全成鎭(總府)3—1高摩須(普專)

◇決勝戰
崔根恒(培材) 3 (11—7 8—11 11—6 11—2) 1 全成鎭(總府)

天氣

概況 大陸高氣壓은 依然히 蒙古方面으로부터 滿洲에 퍼저서 朝鮮本邦方面으로도 미처잇다 千島附近에는 低氣壓이 잇다 滿鮮은晴이고 朝鮮은 多少따뜻하다 昨日本內地와北海道는 風雪이強하다 南西諸島는雨天으로 秀斷風이強하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北西風이 불고 좀춥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零下二度九
同最低 零下一一度四
今朝最低 零下十度二
今日正午 零下三度七

大市街路燈을衝倒

륙일오전두시이십분경 부내황금정(黃金町)이정목 오십삼번지 애국생명(愛國生命)아페서 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 아세아(亞細亞)자동차부 수재건(朱在乾)(二○)이가 운전하야가지고 가든 차가 가로등(街路燈)한개를 바러서 보기조케 쓰러트렷다는데 여손해가 약이백원이며 일금이십원 자동차손해는 업다고한다

淸津의至急電話 西部一部開通

【淸津】 대망의 청진지급전화개통 중이라는데 ...

坡州郡農會技手 公金三萬圓消費

短刀로自殺을圖謀

경기도파주군 광탄면 ... (京畿道坡州郡...里)최지구번지에사는 파주군농회기수(技手)신옥순(申玉淳)(三七)은지난일에 해군나이므로 목을찔르고 자살하려다가 죽지못하고 집안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보호중이라는데 그원인을 취조한결과 전기신옥순은 소화구년경부터 문산(汶山)농업창고에 근무하다가 미두에손을대어 공금약 삼만여원을 소비하고 발각될것이 두려워서 그가려자살을 도모한것이라는데 당국에서는 감시중이라한다

馬山에火災!

오일오후다섯시삼십분경에 마산부부정(馬山府富町)채소장사 강원경(姜元慶)방으로부터 불이나서 부근가옥두채에옮겨오고 가든오십분동안에 전소하엿는데손해는약사백원정도이라고한다

"五十萬圓財團못되면 不得已公立으로"

平南道學務課長이李、韓兩氏를招請 崇實、崇義兩校에態度表明

【平壤支局電話】 북장로교조선선교회에서 폐교수속중인 숭실(崇實)숭의(崇義)두학교에대신할 후계학교가 재단법인(財團法人)으로나오느냐 공립(公立)으로되느냐는문제는 기보한바로 엿세날오전열한시오십분 평남도학무과에서는 숭실후계재단기부자리 춘섭(李春燮)씨를 초치(招致)하야 백석(白石)내무부장과 무미(武尾)학무과장이 회견하고 이때까지의 경과를설명한후 재단법인으로 하는대는 최소 한도 오십만원이 필요 한데 이액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현재 기부액에다 국비보조(國庫補助)와 도비보조(道費補助)를 합하야 공립(公立)으로 할수밧게업다는 방침을 피력(披瀝)하야 여기에대한 태도를 결정하도록 리씨에게 요청(要請)하엿스며 동일오후에는 숭의후계재단기부자 한인보(韓仁輔)씨에게 가튼요청을하기로 되엿는데 이문제에대하야 도당국으로서는 량씨가 오십만원을채우기는 곤난시될으로 두학교는결국 공립으로될수밧게업는 사정으로보고잇다 도당국과 회견을마치고 나오는 리춘섭씨를 차즈니 별항과가튼요청을바든것을 시인하고 다음과 가티말한다

문제가 중대하니만치 지금무엇이라고 말할수가업다 충분히 생각하여본뒤에 나의의견을 도당국에 말할작정이라고한다 좌우간 벌서 십이월이요 새학기가 작고 갓가워오니 문제를 하로밧비 해결하여야되겟다

北國에酷寒

吉惠線滿浦線地方에 零下三十四度暴威

철도국에 드러온정보에의하면요지음날기가 몹시치워저서 륙일오전륙시현재로 함경선 백무선(白茂線)길혜선(吉惠線) 만포선(滿浦線)일대의기온은 갑작이나려서 제일치운곳은 삼십사도나되는곳도잇다

▲吉州○下十四度 ▲白岩○下二十三度 ▲惠山鎭○下卅四度 ▲擧坪○下十七度 ▲狗峴○下卅度 ▲熙川○ ▲江界○下廿度

철도국에서는 종업원에게는 그의행방을 어렵흥이동시에 관하(管下) 각파출소에 각가정에 피해가밋지안토록 만전의주의를 하도록엄명하엿다

關西自動車學院

【平壤】 삼일오전다섯시오십분경 평양부내인흥리(仁興里)관서자동차학원(關西自動車學院)이층에서 발화되여 마침세차게부는 바람에화염이 하날을 찌를드시 연소되어 나가는것을소방대의 민활한 활동으로 동오전륙시경진화식혓는바 손해는일천원 원인은 「전기곤론」의 과열로 발화된것이라는데 학원은 부근에 림시 교사를정하고 계속교수하리라한다

스포—츠欄

淑明籠球團 東京遠征

女子籠球界의 覇者淑明女高籠球團은 明春一月四日부터 東京市本鄕에서 열리는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에 出場하기로되여 벌서부터 猛練習을거듭하고잇다는바 現役들에다가同校出身의 「까—드」一名을 加하야陣容을 强化시킬터이라하며 女子籠球界의 東京遠征은 일즉이第一高女와 京城女師가 出場한외에 세번째遠征인데 淑明의出征은 籠球界의 크다란 期待를받고잇다한다

昌慶苑링크 今日부터開場

連日嚴寒되는 寒波로 市內各處의 氷上競技場은 이미開放하엿는데 今六日에는 昌慶苑링크도 氷厚二寸五分에 達하야 一般에게 有料開放하엿다는바 昨冬에比하야 六日間이나 빠르다고한다

Columbia 콜럼비아 專屬藝術家總動員

流行歌漫談舞踊의밤 —大毎事變ニュース上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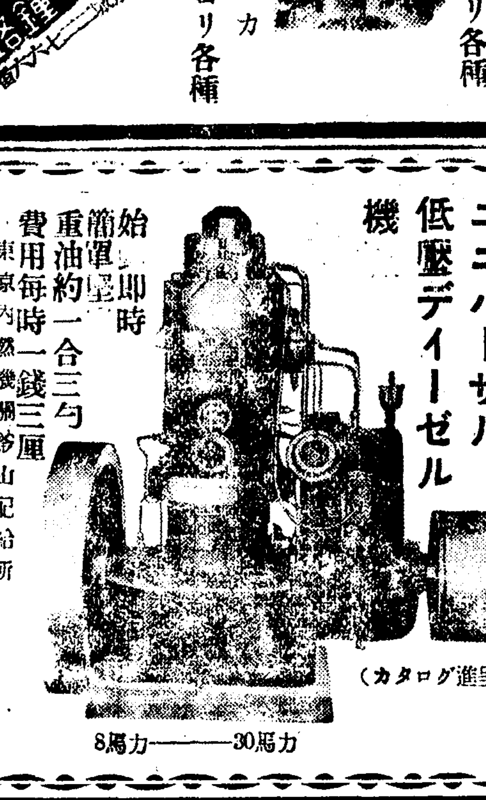
日 十二月九日
時 午後七時開演
場所 府民舘大講堂

入場方法 森永미루쿠초코레—트 五十錢買上하시는분에게招待券一枚進呈

主催 日本콜럼비아蓄音器株式會社 森永製品朝鮮販賣株式會社
後援 朝鮮日報社

山口樂器店鐘路支店 京城府鐘路二丁目

トンボ KKK ヤマハ 手風琴 四、八〇ヨリ各種
ハーモニカ 七五ヨリ各種
ヴァイオリン五、五〇ヨリ各種
ギター八、〇〇ヨリ各種
マンドリン七、〇〇ヨリ各種
ウクレレ二、五〇ヨリ各種
カタログ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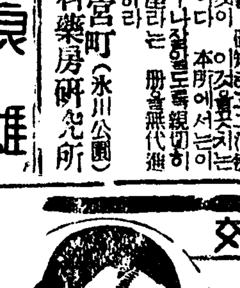
ユニバーザル 低壓ディーゼル機
始動即時 簡單堅牢
重油約一合三勺 費用每時一錢三厘
東京內燃機關 釜山配給所 釜山府大倉町四丁目
森田商會機械部 電話長六五六番 振替釜山二四四七番
(カタログ進呈) 8馬力——30馬力

內科 一般外科 整形外科 レントゲン科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入院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八丁目(本電車停) 電話本局②一八四八番

眼科 大明醫院 院長 金廣業
平壤竹典里(和信東隣) 電話一三八五番

코나쁜사람
手術하잔코압호잔케 自宅에서할수잇는 治療와 그方法
埼玉縣大宮町(氷川公園) 東京鼻科藥房研究所

効力으로팔리는



胃腸病特効劑 即治水 즉치수
【効能】急慢性胃카타루。胃酸過多。其他胃腸病ニ特効アリ
定價 一圓·二圓 三圓·四圓
京城府樂園町 漢城藥舘本店
全國有名藥房에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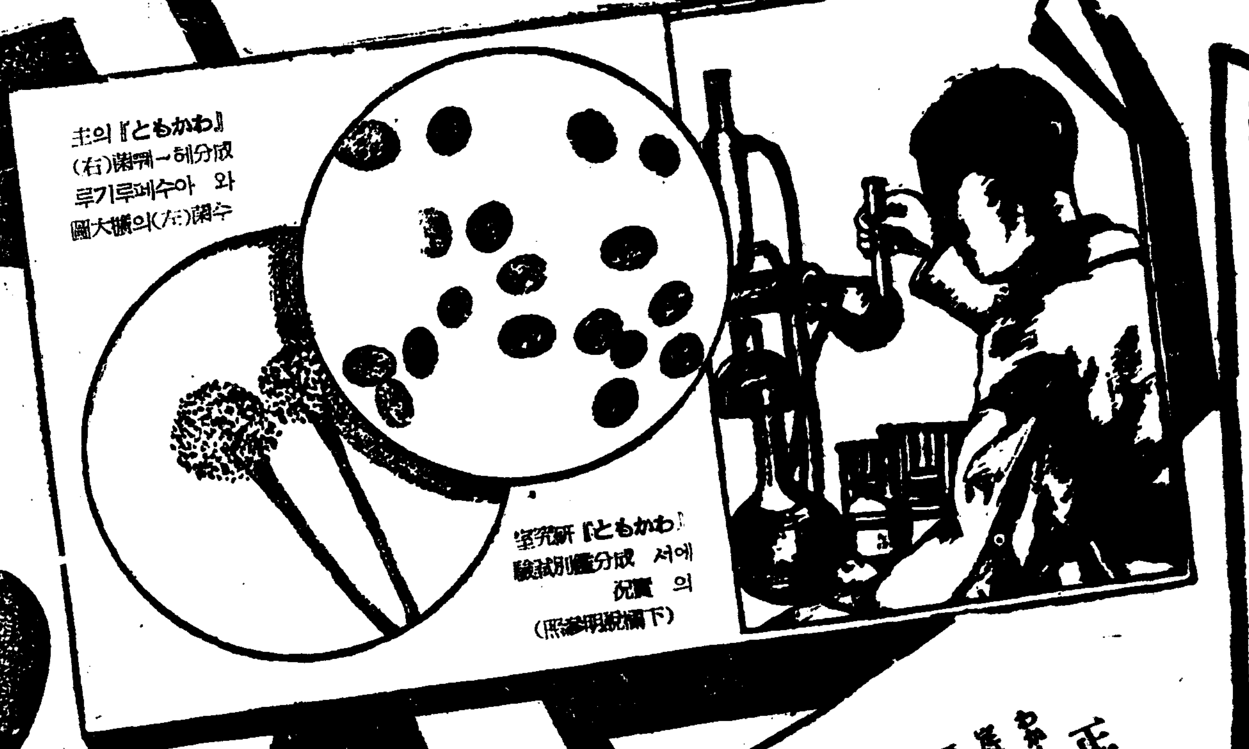
此人은 血壓이놉하 내종엔腦溢血中風에걸려

血液의混濁을업새고 原因부터治療하라

中風도나어

大邱支局 本社 電話一四四三

第一劇場 電話光一七五五番
仇敵
靜かな十六夜
女はなぜ怖い



純粹なるヘーフェ菌は?

正·不正의試驗所?

わかもと는 [illegible] 正確한 [illegible] 灰白色을 呈하는것은 [illegible] 等의 侵入에 對하야 [illegible] 沈澱物이 生하야 [illegible] わかもと는 이러한 沈澱物이 업습니다 [illegible]

世界唯一의複合헤ー뮈菌劑

「わかもと」는發見者의 [illegible]을 要求하는 [illegible] 二十年間不斷한 研究의 結果 世界唯一의 複合[illegible]으로서 完成된것입니다。

本劑의 主成分인 비타민B複合體가 가장 [illegible] ー뮈菌이다、이것에 消化酵素아미라—제의 强力한 [illegible] 수메르기루스菌 其他新發見의 菌類를 配合해서 [illegible] 分을 複雜化한 點과 病原菌의 組織細胞에 [illegible] 健한 內臟組織을 再建하는 獨特한 作用을 發揮하는 點 에이처서 從來의 對症的 化學藥劑는 勿論 [illegible] 母劑 비타민劑等의 [illegible]을 根本的으로 是正하는 複合 微生物劑입니다

わかもと
모 와 도 까

食慾、消化、溶菌、便通의綜合効果

胃腸

慢性胃腸病은 病名이나 症狀에 不拘코 胃腸의 實質인 組織細胞가 衰弱하고 無力하게되고잇는것인대 從來의 對症的胃腸藥은 어것을 放置하고 專혀 消化作用、吸收作用等의 振作만을 偏重한 關係로 效果는 一時的 局部的이요 根本的治療에는 이르지 못하엿다

複合헤ー뮈菌劑「わかもと」는윌효ー以來의細胞病理學이 要求하는 病原治療藥으로서 비로소 完成한것으로서 個個의 症狀에 不拘코 直接的으로 衰弱組織의 强化病態細胞의 再建을 目標로하는故로 諸種의 胃腸障碍에對하야 病原의 效果를 發揮하고 가장難治라고해오던 胃腸의 潰瘍을 速히 再建할수잇는 點과 對症藥에 依하면 全然反對의 處置를 必要로한 泄瀉와 便秘와를 一劑로써 正便으로 恢復케 되는點은 特히 注目됩니다

榮養

榮養의本意는蛋白質、脂肪、含水炭素、無機物、비타민等 人體必須의 榮養이 體內에잇서서平衡을 保全하는대잇고이것이 變調가될때 健康은 破壞된다。今日慢性的 內臟疾患의 大部分은 榮養의平衡을 일으는대서 일어난다고 하지마는 從來의 榮養劑는 單純히 或種의 養素비타민等을 個別的으로 補助하는대 不過하고 滿足한效果를 期待할수업섯습니다

複合헤ー뮈菌劑『わかもと』는 아미노酸、구리고겐、脂肪酸、無機物、비타민의 養素에各種 엔치ー므、호르몬等을 綜合的으로 含有하고、體內養素의 平衡을 엇게하는것을 特長으로합니다、故로 一劑로써 胃腸의 機能을 整備하고 榮養充實、血液增加、病菌溶殺等의 作用을 發揮하고 結核衰弱疾患을 治癒하야 病弱體質을 改造할수잇는것입니다

藥價低廉

粉末九十瓦	一圓六十錢
粉末二百七十瓦	四圓五拾錢
醫師處方用以外乳兒의 牛乳에添加 販賣劑로서 粉末을 質用함	
錠劑三百錠入	一圓六十錢
錠劑一千錠入	五圓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番・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家庭

암만곱히구러도 얼른안붓는숫불

◇단단한숫과연한숫의쓰는곳 ◇숫을리되게쓰는법

요사이와가러 숫(炭)을만히쓰는때는 한가정의 주부되시는분이 숫에 대한지식이 업스면 가정경제에 적잔흔 영향이 잇게될것입니다。

숫에 여러가지 종류가잇습니다。

백탄이라하야 빗갈이 하얀 숫이 잇는데 백탄은 모두 참나무나 그외의 단단한 나무를 태워서 구은것입니다。

백탄이 조흔것일수록 퉁이가늘고 두드리면 쇠소리가 납니다。백탄가운데도세종류가 잇는데 제일 굵은것과 중간것 그리고 제일 가는것이 잇습니다 숫장사들이 부르기는 굵은것은오ㅣ마루(大丸)라고하고 중간것은 주ㅣ마루(中丸) 제일 가는것을 고마루(小丸)라고 부릅니다。그밧게도 백탄이면서 밤나무가튼것으로 구은백탄이 잇습니다。

백탄으로 제일조흔 고마루는 쓰기도 간편하고 화력도 셉니다。

간도의 산업당국에서 검사마튼것이면 그러치도 안흐나 잘못사면 백탄포대속에 잡탄을석거서 파는가상배가잇스므로 속기쉽습니다

참나무숫이 아니고 잡목으로한것이나 뼈려로 구운것은 화력도 업을뿐더러숫치뤄여서 재미업스며 탄산까스가 훨신만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소나무숫치잇습니다 이것은 포장을하지안코 그냥섬에 너허서파는데 굵은바변이 백탄과전연달읍니다 불은 속히부트나 화력도업고 속히 사가저버립니다。

숫에 대한지식이 아무려잇더라도 쓰는법이 서투르면 결국아무소용이업습니다

가령 콩과가티 단단한것을 삶을때에 소나무숫처럼 화력이 약한것을 장시간퉁안 태워서는 경재상대손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러한 경우에는 될수잇는대로 백탄조흔놈을 써야합니다。

생선을 굽는대도 단단한 백탄을써야합니다

그것은 숫불의복사열(輻射熱)을 리용하는것입니다 즉백탄이면불이부러서 러는숫의 표면이 일제히 변해저서비교적 평균된 화력을가지는 까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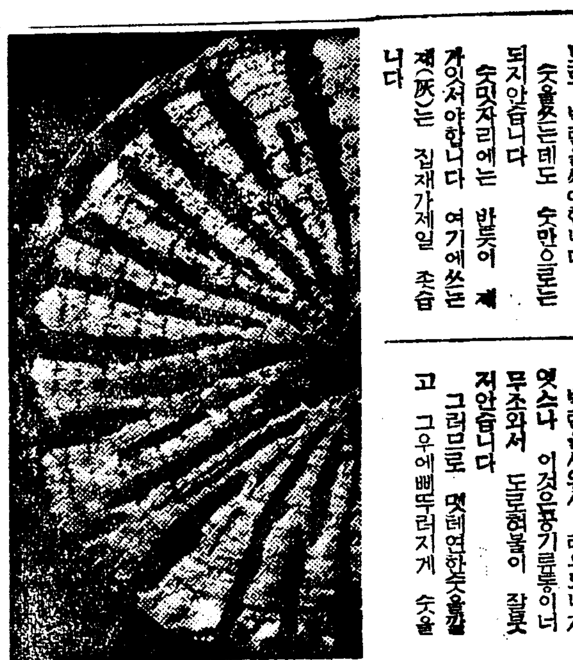
어러한경우에 소나무숫을쓰면 화력이 평균되지안흐므로 자연생선맛에 큰영향을가저옵니다

어러한리치이므로 열반가정에서는 백탄과 소나무숫을다가치 드려다노코 그목적에따라서 이것도쓰고 저것도쓰도록 하지안흐면 안됩니다

무엇이어찌니해도 화로불은오래도록 피는것이 조흐므로 백탄을써야합니다

숫을붓는데도 숫만으로는 되지안습니다

숫덩자리에는 반듯이 재가잇서야합니다 여기에쓰는 재(灰)는 집재가제일 조흡니다



만약집재가업거던 보통재라도 될수잇는대로 잔것을쓰면 오래동안불이됩니다

백탄을세워서 태우는니가 엿스나 이것은공기를통이너무조와서 도로혀불이 잘붓지안습니다

그러므로 몃데연한숫을깔고 그우에뻬뚜러지게 숫을 언저두도록하십시요

숫에불이붓자면 일정한착화열(着火熱)이란것이 필요합니다。아무리 급히구러차화열에 도달하지안코는불이붓지안습니다。그러므로 착화열에 도달하도록 불쏘시개를 하지안흐면 안됩니다

그리고 화로에는 처사로 화로에맛도록 풍경을만드러서 그우에 배헌것을발러가지고 더러노흐면 불도오래피고 화력도 강합니다。

숫치 튀여서 걱정일때는 연수를 숫에뿌려서두엇다가쓰면조흡니다 연수를뿌려서 말릴때는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야합니다。

"하늘이문허저도 소사날구녁이……!"

밥고락에 자개바람이 나도록 도라다닌대야 취직이금방되는것도 아니고 그러타고 몸을 길게뉘고 멍하니 안자잇자니 구슬픈생각만들고……。직업업는사람의 세상이란 이런게지요만 아ㅣ 놀라운일입니다。이런수잇스니까요ㅡ

하늘이 문허저도 소사날구녁이 잇다하지만 불란서『파리ㅣ』의 한 실업자는 세게적 불향에 희갑겨 아주 느러질대로 느러지고마럿습니다。그러다가 문뜻생각난것이 잇섯서요。ㅡ허구헌날 심심하게지내자니 배겨낼수가 업구해서 작난삼아 배운것이 편물인데 이재주를 미천삼아 거리로 나서서 거리에뇌인 벤취에 걸터안저서 오고가는사람을 구경하면서……세ㅣ타ㅣ와 짜켓、장갑가튼것을짜면서 파라보앗드니 참별일이야요 엿처면 손님들어 들끌든지 열흥퉁안에보통은 팔자가 제법느러지고마럿다합니다。

(사진은 보십시요)

토끼가되고,악어가되고 탈도만흔달의얼굴

"그러나이세상사람하곤다정한새"

옛날사람들은 달을이러케보앗다

해를태양(太陽)이라고하고 달은 태음(太陰)이라고하는것은 여러분도 아시겟지만 태양이 태음보다 장하고 크고하다하는생각은 누구에게잇습니다만은 적다읍고 신비스럽고 한점으로 보아서는 달이해보다 이끼가잇습니다。해는 처다볼수업는것이니까 멀고 달은엽 마는지비란볼수잇스니까 가차운지도모르지요。

옛날세계의 전설을보면 어느나라것이나 대개태양을남자로치고 달은여자로처서 해와달은남매이라커니 부부라커니 형제라커니 (가때사나운형이 해가되겟지요) 햇는데 어째꺼나 해는엄한아버지 달은인자한 어머니처럼되어서이세상인간들을 만히딸케하는것이 달입니다。그럼 옛날사람들은 달을어떠케 보앗슬까요

◇

옛날『그리샤』의 학자인 『아나크시만델』이란 사람은 달과별을사람이사는 어떠한 땅의어느구퉁이에 구녁이 뚤러저서 그리로새어나오는 광선이라고햇습니다 그리고 달이기울고차고하는 것은땅의구녁이 커지고 조버지고하는때편게가 잇는것이라 하고야단스러운학설을 주장햇습니다。그러든것을 기원전 오백년사람으로『아나크사고라스』라는분만이

『달은 땅덩어리와 마친가지로 산도잇고 들도 잇는것이다』햇스니 옛날사람이지만보기는 잘보앗습니다。

그뒤에 또『푸르타ㅣ크』란분이 달의 밝고어두운 경계선이 분명치못한것을 산이만코 놉고 나진차가 잇기때문이라고 한것도 장한 발견입니다。그당시『그리샤』사람들은 달어사람의 얼굴로 되어잇는줄만알고 잇섯답니다。

달에잇는 밝고검은자리가분명치못한만큼 옛날사람들은보는이 제각금 달렷습니다。가령 옛날『페르샤』사람들은 달은거울이다 그거울에우리가 사는땅의 산과바다가비처서 얼룩얼룩하게보인다고햇고 또어떤사람들은 달과 자구사이에 매달려잇는 그무엇이 가루거저 그러케보인다고 햇습니다。

옛날『뻬빌로니아』사람들은 달속에 악어(鰐魚)가잇다고 햇고, 지나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들고잇는 사람이 보인다고도 햇고, 토끼가잇다고도햇고, 두꺼비가 엿다고도햇습니다。그러키때문에 한문에 달을 옥토(玉兎)、또는 옥섬(玉蟾)이라고도 씁니다。일본내지에서는 달속에 계수나무를 비는 싸나이가 잇다고보앗습니다。

또 지나에서는 혹히 달을 항아(姮娥)라고도하는데 여겻은 유궁후예(有窮后羿)라는사람의마누라인 항아가 자기남편이 서왕모(西王母)에게 청해서 어든장생불사약을 훔처먹고 신선이되어달로 올러갓다는 전설도잇습니다 그럼조선서는 옛날에 달을어떠보앗나? 달아달아밝은달아 리태백이 놀든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백혓스니 ……

여러캐를 노래를부르는것으로보아 저나와일본내지사람들과 가티생각햇든모양입니다。

사진설명‖여러나라사람이본 달입니다。1、은일본에서 본토끼、2、지나에서본토끼와두꺼비 3、『뻬빌로니아』사람의 성좌도(星座圖)인데 복판근처에잇는 M표가 달입니다 4『인디엔』사람이본 악어、5역시『인디엔』사람이본도마뱀 6역시그사람들이 본것인데보름달이 [illegible] 7은염소 8은[illegible]보는소[illegible]다

지차리우

강아지

『할머니는 애기만보시면 우리강아지 우리강아지 하시니 정말 내가 강아지 가태요。』

『귀여워서 그러선단다』

『그럼 보드러운 털이낫스면 더귀애하시겟네』

(글쓴사람 조경민)

살결곱게하자면 잔털을업샐일

ㅡ면도는함부로못할것 콩비누가살에는조타

여자로서 얼골에 털이만흔것은 보기흉할뿐 아니라 얼마큼 늙어보입니다 살결이 바질바질하지못하므로 분도 잘피지안코 화장도 엉망입니다。

미인이되는 근본조건은살결이 아름다운것이 제일이며 화장이 그다음입니다 그럼으로 어마와 뺨 코밋츨로부터 목까지 자연으로 잔털업새는방법을 아러두어야 합니다。

제일 간단한것은 면도질을하는것이나 이것은 털이 만흔사람이 자조하면 깍근자리가 퍼러케되며 그부분이 어 거치러지고 또한 자극이 심하야저서 자연 피부가 두터워짐으로 자연털도 법을 써야합니다。

미간에나는털이나 어마에 나는털은 족지께로 뽑는것이 오래도록 털이나지안코 조흡니다。

더운물에 타올을 적시어서 그부분을 한참대서 털구녕을열고 털을 부드럽게 한뒤에 족지께질을하면 아프지도안코 잘뽑힙니다

그자리에는 알콜성의화장수로닥고 그다음에 멘소래담가튼것이나 콜드크림을발러두면 거치러지지안습니다 옥씨풀은 필요한 털에는바르지말도록 하십시요 여자로서 손구락에도 털이나는이가 잇습니다 이런분도족찌깨로 뽑도록 하십시요 또 탈모(脫毛)크림을 발러도조흡니다 그러나 써보지못한이가 잘못쓰면 중독되기쉽고갑도 비싸니 옥씨풀의 털의색소(色素)를 빼다든가 족찌깨를 쓰십시요

옛날에는 쌀겨를 가루비누처럼 썻다고하는데 이것을써서 살결이 아름다운이가만타면 이것은 쌀겨세분의효과입니다

그리고 콩가루로 세수비누대신쓰는데 이것은 모두식물성지방(植物性脂肪)이잇고정분도잇스므로 살결에는대단히 조흔것입니다 오래동안 계속하야 쓰면 얼굴에보기흉한 털이업서지고 부드러워지며 살결이아름다워집니다

이가루를 주머니에 너허서쓰는데 엷은흰주머니가 제일조흡니다 쌀겨가루는 불쾌한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석회가튼것은조흡니다 거기에 경단을타러서쓰면 더욱조흡니다。

구두는 밤에마칠것

구두를 주문한다던지 지어노흔구두를 살라면 반듯이 저녁이나 밤에사도록하십시요 사람의발은 아침엔 적어지고 저녁이나밤에는 커집니다。그러하야 아침에발이적을때에 사신은구두는 살때엔 그러치안터니 저녁에신어보면 엄청나게 끼이게되는수가잇습니다 아침에자고일어낫스므로 발의조직속에수분(水分)이 업서지므로 줄어드럿다가 나제거러다니면 밤에수분이모여서커집니다 그뿐아니라 각기잇는사람의발은 아침과저녁의 차이가여간크지안습니다

어떤것이더운가 속사쓰

주위도 본격적으로 되여드러갑니다 어떠케하면 겨울을뜻하게지낼가하는연구를해보십시요 방한하는연구로는 내의입는법을아러야하며 묘리잇게해야합니다。

털샤쓰는 될수잇는대로 목에붓도록입는것이 조흐며 비단실로짠 내의는 조곰헐렁헐렁하고커야 더웁습니다。

그러므로 털로짠것과비단으로짠것을 석거서 입는것이제일조흡니다。

이것은 몸이더울뿐아니라 양복모양을 망처노흐려면도 업고 가볍습니다

메리야스 두러운것을 입는것은 형편이 하는수업스면 모르거니와 그러치안흐면 더웁지도안코 양복을망처노흐니 될수잇는대로 피하는것이 조흡니다。

中篇小說 人生特急 【54】

盧春城 作 崔根培 畵

黎明의아침(六)

세사람은 자동차를타고 호텔로 향하게되엿다。그러나 자동차안에서부터 짱웅은 버러지기시작하엿다。

『웬여잔데 호텔까지 데리고가는게요?』

영순은 처음으로 섬미를 부리기 시작하엿다。

『잘 알든여잔데 호텔까지 가 보겟다구 그러는구려?』

이것은 오빠사의 흐리멍텅한대답이엇다。

『그럼 래일 맛나시지 어째서 오늘밤 호텔까지 가야할 필요가 잇나요』

『그러치만 작구 가자는걸…』

『가치 가자면 가요 웨 이러케 말이좃소? 아무래두 전에 관게가잇는 여잔게지?』

영순은표독스러운 눈을뜨고 암상을피우기 시작하엿다。〃빨작 크〃의양의 밤여처럼무서운것은 업다』하는말이 잇지마는 상냥하고다정하든 영순이니만치 암상을 피우기시작하니 말끗마다 바늘로찌르는듯하고 그암사자가튼 표독이 당할수가 업다。

『여보영순씨좀 기다리서요。그저아는여자라니까』

『그래 아는여자면 모두호텔까지 끌고가야해요?』

영순의목소리는 거츨기 시작하엿다。

이때여페 안진 사루나는

『미스타 오ㅣ』

하고 억개를 치며 맛방망이를 치기시작하엿다。

『웨 저여자가 성을 내는게요?』

『몰우지오ㅣ』

오빠사는 여러케 시침이를 떼지안흘수자 업섯다。

『몰우다니 저여자가 내가 따라온다고 강짜하는게 어니여요?』

사루나의 노란눈은 번개가티 오빠사를 쏘아봣다。

『강짜가 무슨강짜요?공연히그러제!』

『그래 저 여자가 당신의 애인이구려』

『아ㅣ……』

빠사는 대답대신에 그만 한숨을 쉬고 마럿다。

『왜 대답이 업서요……』

『…………』

오빠사는 입을 다물고마럿다。

이때 자동차는『호텔』아페 머저지면 뽕하고 소리를첫다。오빠사와 영순은 각각 자기방으로 드러가고 사루나는 오화사 뒤를 쪼차 그의방으로 따라드러갓다。그러나 여기서부터 무서운 사랑의짱웅은 버러지기시작하엿다。사루나는 오빠사가옷을 벗고 자리에 안기를 기다려

『그래 당신은 애인이 잇서서 나를 오지말라고 전보까지햇구려…』

『…………』

『그래 요러케 감쪽가티 나를 속여 먹는게야。상하서 감언설로 나를꾀여 로마로 보내고는 고생에 벌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본체두 안는게야?』

사루나는 입에 게거품을 물고 한바탕 단단히 해보라는 눈치엿다。

『내가 잘못이오。그저 그러케된것을 어쩌우?』

오빠사는 술을 달래는수작이엇다。

『그저 그러케되다니……아무리 새마기로 사랑하느니 어쩌느니하고 바면두 못뵈여 나를 …가티 보는거야。나는 당신만바라고 수륙몃만리를 멀다안코 오지안헛서……?』

『용서하오。만번 잘못이오』

오빠사는 또어러케 빌부텃다。

『용서고 무엇이고 난 몰라요 난 죽어두 당신을 따라 갈테니까 그여자는 돌려보내요?』

『그건 할수업서요』

오빠사의 대답은 좀 날카러웟다。

『할수업다 그럼 어찌할 작정이오?』

사루나의눈은 독이 올랏다。

맹이를 놀리는 맹수의 눈가티

『여보 사루나!차차 이야기하겟지만 난 조선사람이오 사정두잇고 그러니 당신은 여게서 맷칠 머물고 그만 만사를 단렴한후 귀국하시오。당신의 생활비는 내가얼마간 보태드리리다』

오빠사의 소리는 우는드시 매우 간곡하엿다。

『도리가 그래 내가、생활비를 타고저 여기까지 와단말이오?』

사루나의 목소리는날카러웟다。

『사정이 그러니 어찌우?그저 용서하시오。전에 나를 사랑하든 그마음으로 나를 단렴해주서오』

『단렴해줘 웨이러케 얼굴이두껍소?』

두사람은 며운듯이 서로 바라 봣다。

ハリバ 一粒肝油

하 리 바

그러나 지금까지에 使用되어오든肝油는 좃치못한냄새가나고 分量을만이먹어야되므로 먹기가겨북한까닭에 곧中止하는처이 큰缺點이엇습니다만「一粒肝油하리바」가생긴後로 이缺點도打破되고말엇습니다

더구나 하리바는 지금까지의肝油에比하야 百倍前後나濃厚한 비타민AD를含有한 진국의肝油이니 少量의服用으로도 充足하므로 아모리 藥을실혀하시는분이라도 잘 잡수시게되므로 더욱有效합니다

呼吸器가弱하신분은 胃腸도弱하나 하리바는 極히少量의服用으로 足하므로 胃腸에 포장을일으키지않고 惡臭도없으므로 먹기에편합니다

百粒…二圓五十錢
五百粒…十圓五十錢
全道藥房에잇습니다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結核豫防에

무엇보다도 먼저榮養을充分히取하야 體力을强壯케해서 아모리 幾萬의結核菌이附着하여도 使餘할餘地가없이 하여야되나니 그中에도 呼吸器의粘膜을튼튼히하고 病菌에對한防壁을强力케하는처이 結核豫防의根本目的입니다 이目的을達하랴면은 언제나 肝油가제일먼저選擇되오니 즉 肝油에는 病菌에對한粘膜의抵抗力을强化식히는 비타민A와太陽의光線을照射하는것과同一한効力을가진 비타민D가濃厚히 包含되어잇는까닭입니다

「結核患者의게는 一日四五十瓦의肝油를드리라」力說하고잇지만 이런때에도 하리바면 一日단十粒前後의 少量으로充分합니다

普通用量
幼兒……一粒
小兒……二
大人……四粒

HV-K-21

李朝畫家誌 (13)

畫宗鄭歚

湖岩

謙齋는畫壇의大家이니 [illegible] 特히山水에 能한 玄齋가 謙齋의 畫法을 [illegible] 하엿다하니 英祖朝의畫壇을 代表한巨匠이다。[illegible] 自我의發揮에 잇섯는데 [illegible] 山水人物을 잘하엿스므로 謙齋 玄齋를 二齋라하엿다。그리고 [illegible]

謙齋는家勢가貧寒하고 [illegible] 그림을唯一의 資本으로 [illegible] 하얏스나 晩年에더욱精妙하엿다。그러므로 [illegible] 山水圖記에 갈우되 [illegible]

謙齋는 九十四歲의平生을 두고 [illegible] 畫를 [illegible] 하야 [illegible] 後世에 [illegible] 하엿다。

그의그림은 [illegible] 自運而模古하고 [illegible] 正(玄齋)이잇스니 花卉草虫 [illegible] 三家優劣이如此하니라」어로 [illegible] 妙한 [illegible] 다。

文化의構造를論述함

文化와勞動의關係는어떤가

(六) 徐寅植

그러나 文化는 文明으로서의 一般的特性을가지고잇는 限에서만 또한 文化로서存在할수잇는것이다。그리고 文化가 文明으로서의

一般

의特性을가지기爲하여서는 그의外延的範圍는 勞働技術의發達程度=人間對自然의 交涉範圍가擴大함을따라 끈임업시 擴大되지안흐면안된다。그럼으로 社會가 氏族에서種族으로 統一되여나가면 文化도 氏族文化에서 種族文化로 統一되여나가며 社會가 民族에서世界로統一되여나가면 文化도 民族文化에서 世界文化로 統一되여 나가는것이다。

綜合하여말하면 文化의 基本的 發展方向은 늘 그가對應하는 社會의 基本的 發展方向에 一致하여나가는것이다。

다시말하면 歷史上에 繼起하는 各個의 社會形態에 特殊한發展形式이 잇는거와가티 文化에도 文化로서의 特殊한發展形式이 잇는것이다。封建文化에는 封建文化로서의 特殊한發展形式이 잇고 市民文化에는 市民文化로서의 特殊한發展形式이 잇다。文化가 統一에서 分立으로 分立에서 統一로나감을 文化의 一般的運動形式이라면 이곳에서말하는 特殊形式이란 그一般的運動形式이 具化한形態를 일은것이다。

個個

封建文化는 種族文化에서 身分文化로 分化하는同時에 民族文化로 統一되여나왓다。그런데 近代文化의 發展形式을보면 그는 近代의基本的方向을 沿하야展開되면서잇다。即 그는 民族文化에서 階級文化로 分化하는 同時에 또한 世界文化로 統一되면서잇다。이것은 近代社會의 現實的發展方向에 一致한 運動이다。왜그러냐하면 그는 近代文化의現實的基礎를 일우고잇는 資本制生產의 展開運動에 一致하는것이기때문이다。

資本制生產은 發展하면할사록 그構成人員을 民族에서 階級으로 分化하는同時에 그構成範圍는 國民經濟에서 世界經濟로 外延하여나가는것이다。따라서 近代社會가 發展함을따라 市民人間은 統一된集團에서 對立한集團으로 移行하며 孤立한市民에서 世界市民으로 同化하여나가는것이다。그러함으로 近代文化가 民族文化에서 階級文化로 分化하며 또한 世界文化로 統一되여나가는것은 歷史的

必然

性을 가진運動이다。다시말하면 오늘날의文化諸狀態가운데 文化의自然性과 歷史性이統一된 具體的普遍文化는 오직一面에잇어서는 階級性 他面에잇서서는 世界性을갓고잇는 文化가 이와가티 近代文化의基本的 [illegible] 라 濃落의運命을밟게된것은 그다 그가 近代社會의 發展에따 [illegible] 性만갓고 階級性은 갓지못하엿다。리베랄리즘의文化一般은 世界性만갓고 階級性은 갓지못하엿이다。오늘날獨逸의 全體主義文化는 階級性도 갓지안엇거니와 世界性도갓지안엇다。왜그러냐하면 全體主義의 文化運動의目標는 統一되여나가는 世界文化를 地域文化로分割하며 分化하여나가는 階級文化를 民族文化로統一하려는데 잇기때문이다。다시말하면 그는 現代文化의 基本的分化方面에도 背馳하거니와 基本的統一方向에도 一致하지안는것이다。

一致

따라서 우리는 그 全體主義文化가 二重의意味에서 現代文化의發展法則에 抵觸함을알수잇다。全體主義文化의 [illegible] 는 이러한歷史的根據에서 由來한것이다。分解되는集團의우에 한낫의統一된文化가 오래동안 存續할수잇으며 世界市民의압헤 한낫의孤立한文化가 오래동안支持될수잇을까? 解答은 明白하다。社會의基本的發展方向에 一致하지안는文化는 文化로서 存續하기어려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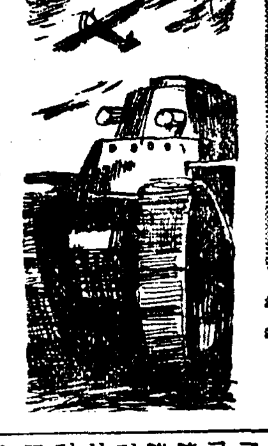
全體主義는 自給自足主義를 求하야 各民族單位의 分裂을 救하고 그들의 經濟生活을 封建的 地方市場으로 復歸시키려는것은 스곳튼·니아링이 그의全體主義論에서 한말이다。[illegible] 으로 運逆하는 歷史的發展方向에 一致하지안는文化는 文化로서 存續하기어려울것이다。

文化

에 對하여서도 [illegible] 全體主義文化가 方的自然發展에 對應하는 地域文化로 退化하고말것이라고。(完)

漢詩募集

題 梅
押 枝
限 十二月十七日



火砲發達의一面

口徑增大과超長距離砲

(三) 一記者

彈丸이 砲口를 나와서 다시 地面으로 떨어지는 까지의 水平距離를 射程이라고 하고 砲口로부터 彈道의 切線과 水平線과 이루어지는 角을 射角이라고 하며 彈道中 最高의 點에 잇서 彈丸의 速度를 最高點이라고 하는데 [illegible]

實際上 大差가 업는 것이다。또 仰角이 零以下 下向할 때는 [illegible] 이라고 [illegible]

最大射程을 주는 射角은 眞空中이라면 四十五度이나 그것은 地面은 平面으로 重力의多少와 方向이 어데나 同一하다는 假定아래서만 들어맛는소리다 [illegible] 地球의 上層下層의空氣密度가 다르고 地球의 [illegible] 長距離彈丸의 [illegible] 생기는 까닭이다。(以下 略)

火藥瓦斯가 그 內面에서 作用하는만큼 그것을 견듸어 낼것이 어떠한 될다。[illegible]

砲身은 射擊의 實力發揮의 主要部分이다。非常한 高壓高溫의 火藥瓦斯가 그 內面에서 作用하는만큼 그것을 견듸어 낼것은 勿論 [illegible]

初速(米秒)　射角(度)
七五〇　四二
八五〇　四五
九〇〇　五〇
一〇〇〇　五二
一六〇〇以上　五五

以上은 彈丸을 橫으로 본것이나 지금 砲의 後方으로부터 彈丸을 본다면 彈丸은 多少間 左나 右로 빗간다。[illegible]

詩情畫意 (卅一)

林仁老 詩　李[illegible] 畫

深山에 밤이드니 北風이 찬도찻다
玉樓 高處에도 어바람 부는데오
긴밤에 치우신가 北斗비겨 바래노라

에고이스트 愛己而修道

(四) 朴泰遠

오늘도 또 날이 져물다。나도 안된다。

나는 마음 한노코 애기를 [illegible] 는 赤是 房櫳을 내리쏙에서담배를 태운다。안해에게는 房櫳에 [illegible] 뒤적어렷다。안방에서 안해가 두들어오지 안는 어름에는 어린것에게 북게는 보양이나 나를 [illegible] 하라 命令하는 것을 어루 [illegible] 勿論 「新聲中」 어니까 그런 [illegible] 엿다。내가 무엇을 쓴다면 안해는 조용하여도 조흘 [illegible] 에 若干의 金品과 나의글을 [illegible] 까닭이다。

그때 그는 [illegible] 하면 나의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안되려하고 매우自得한 女人으로 化한다。[illegible] 房안에서 담배를 태우는것이어 勿論 [illegible] 을 나누어주지 안는것이 赤是 [illegible]

스스로 마음에 키엇다。그래 생각끄테 난데업는 「孟子」를차저내여다 册床머리에 펴본다。언해도 勿論 [illegible] 그러케 聖賢의 글을 보기 爲하여서니 그는 決斷코 나를나 [illegible] 나는 「孟子」見梁惠王하신대」하고 매우興味잇게 두어줄 읽어나린다。

「王曰 叟ㅣ不遠千里而來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ㅣ잇가」「孟子ㅣ對曰 王은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王曰 何以利吾國고 하시면 大夫ㅣ曰何以利吾家오하며 士庶人이曰 何以利吾身고 하야 上下ㅣ交征利면 而國이 危矣리이다……」

愚王에게는 좀 [illegible] 한 일이기도 하지만, 열번을 되푸리 읽어도 赤是 聖賢의 말슴이란 至極히 올흐고 아니할수업다。우리는 士庶人이라 何以利吾身고하야 그래 안해가 그러케 조흔 [illegible] 나는 [illegible] 안해는 또나로 [illegible]

나는 느끼바 잇서 悠悶을 빠겨노하 房안의 空氣를 갈고 곳 아이에게로 갓다。아이는 그의 왼갓 세간을 房안에 가득차게 늘어노코 내가 들어갓서도 別로 興味를 느끼지 안는듯이 오직제 作亂에만 팔려잇다。

「雲英아——。너、아빠하구놀자 응? 이러케 모두 헷드리지 말구말이야。雲英이아가는 요기다가 안치노코、雲英이 토끼는 요기다가 요러케노코 또雲英이 멍멍개는 요기다가 요러케……」

그러나 雲英이는 손을 내저어 나를물리처다。

「안야、안야。이처그거 이처!」 「그럼 雲英이 공을 요기다가 노까。」 「안야、안야。서영이 공이쥐」 잠어 든 꾀맹이 여패서 自

[illegible] 좀하지만 그래 그 [illegible] 고개를 돌려 나를 나물햇다。

「웨、혼자 잘 노는걸 괘니그러우。천작 좀 봐주라면 안봐주면서……참、뭐 쓴다드니 쓰기나 햇수?」

나는 그말에는 對答안코、「雲英아 아빠허구 시장 허까」 시장 재미잇게 시장 허까」

그러나 雲英이는 또한번 말하엿다。「안야、안야。아빠 저리가。」 안해도 또한번 눈살을 찌프렷다。

「글세、가만 두래두 웨그러우 괘니、남 잘 자는거깨노쿠……」

나는 쓴웃음을 웃고 내房으로 물러 갓다。聖賢도 小人과 女人은 길르기 어렵다 말슴하셧다。나혼자면 孟子를 읽어도 所用업는일이다。——十一月三十日

偽裝의科學評論

◇…其實리알리슴에對한侮瀆

(六) 蔡萬植

따라서 『것』에 잇서서 乳母가 [illegible] 하고 그의男便 崔서방이 병신스럽고 하다고 그것은 秋毫도 作者가 實在를 머리는 [illegible] 다。

그것을 못난 人物만 추려 [illegible] 는니 失業勞働者의 不義한 生活한 [illegible] 하는것은 結局헌가싱어의 생트집이어요。『明日』에 [illegible] 이나 한가지 어떠할가 하는 勞働者에게의 [illegible] 이다。그러나 그건 [illegible] 三十[illegible] 에 [illegible] 이다。

그러고 그처럼 [illegible] 마가 作定이되고 거기에 所謂 [illegible] 한 에미와 [illegible] 에비가 登場되엇슬때에 作者의 取할 方法은 단 한가지밖게 업고 [illegible] 其그런 唯一의 食慾을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人形과도 달을 [illegible] 그들의 意識이나 行爲이 [illegible] 事件상을 수는 업는거니까 [illegible] 乳母는 [illegible] 그들의 저닌바 個性이 [illegible] 그들의 행동을 깊이 [illegible] 行動을 深刻하게 그려내는것이 [illegible]

거기에 作者의 同情이나 或은 批判이 [illegible] 作者는 눈 한번 [illegible] 酷하게 그들의 醜과 無能을 그려야된다。

그래서 그것이 深刻하면 深刻할수록 讀者의 그들에게 對한 反感은 그것에 正比例해서 크고 다시 反感이 크면 클수록 讀者의 [illegible] 無辜한 乳兒에게 對한同情은 기뻐지게된다。

그러해야만 『것』의 테-마는 살어나게된다。[illegible] 하고 效果잇게 살어나게된다。

여러케까지 [illegible] 解說을 하고나니 까 문득憫心이 드는데 果然내가 『것』이라는 作品을 저급한 對는대로 그러케 잘 만드러낸다나? 하는 自問에 對하야스럽다。

苦肉之策이 아니라 以上의 解說에 꼭 맞두루운 쓰지몯하고 그러나 한가지는 큰소리를 할수가잇다。

讀者의 한사람으로서 金龍濟氏 한분만한테마는 所期의 效果가 잇엇다。

金龍濟氏가 『文學의健康性과頹廢性』이라는데서 『것』을 解說한걸 가만히 보노라면 乳母의 그러한 惡毒한 짓이나 崔서방의 그러한 半便스럽고 不義한 그生活에 對해서 如干한 憎惡와 反感을 가진게 아니어보인다。

작者가 所期한데루 『것』이 보여준바 『惡』과 『不義』에對해서 讀者가 되엇거나 自稱 評論家가되엇거나 아무튼 그처럼 反感과 憎惡를 느꼇다고햇스니 作者로한 저으히 愉快한 뉴-스라 아닐수업섯든것이다。

그러데 그다음이 아주 妥嚴하다。이妥嚴으로해서 金龍濟氏는 가주 恥笑를 당하게 되엇이니 한便 생각하면 可憐타 안흘수업다。

天性이 純朴하다고할가 或은 七八年동안이나 잠을 자다가 선잠이 깨어서 어정쩡에 그래다고할가、아무튼 金龍濟氏는 『것』의 人物인 乳母의 그와가튼 惡毒스런짓이나、崔서방의 不義無能한 生活을、넘우도 憤慨한 남어지、그 분푸리를 사뭇 作者한데다가 하려고 덤벼들엇는것이다。

어느 觀客이나가 劇場에 가서 深刻한 悲劇을 보고는、그劇本의 作者한테로 쪼차가서 「너는 어쩌면 그대지도 殘忍하게 어두개(劇의主人公)을 죽여단말이냐!」 고 칼부림을 햇다는 어예기가 잇다。

金龍濟氏도 萬若 이사람처럼 나한테 칼부림을 한다든지、떡 살젬이를 한다든지햇더라면 그 純情임을 히한이나 여엿슬것을 評論有罪하야、동에도 다치안는 橫說堅說로다가、曰 『文學의健康性과頹廢性』을論함네、曰『레알리슴을 擁護』함네 해서 及其也는 自身의 無智를 들키우고말엇스니 評論有罪를 三歎치안흘수가 업다。

金龍濟氏가 「것」을 그의 主心部를 기우렷는가 하는것은 얼마나 [illegible] 하니까 作中의 멋경 用하는데잇서서 故意로 刊用한것이 [illegible] 수가잇다。

그러나 가장 效果잇게 [illegible] 가령 [illegible] 乳母로 [illegible] 것을 日本內地人네집 乳母라고 꾸몃것이나 乳母가 不良을 꿈꾸고잇지 아직 行動에까지 일으지안혼것을 [illegible] 히려 [illegible] 한것으로 說明한것 가든것은 오히려 「苦惱하게」다。

그러나 「—이상스럽게 두려운 입술을 버려 빙긋 웃는다」(여기에 「이상스럽게」는 그實 「상스럽게」가 誤植된것이다。그러나 지금와서 치사하게 그 「이」字를 取消하려고 하지는 안는다)

이 一節을 金龍濟氏는 「사랑스럽게 두려운 입술—」이라고 至極히 巧妙하게 改削引用을 해노핫다。

女子의 입술을 形容하는데잇서서 「이상스럽게 두려운 입술」이라고 하는것과 「사랑스럽게 두려운 입술」이라고 하는것과는 不過一字의 差異지마는作者의 態度는 天壤之差가 잇는것은 말할것도 업다。

또 그다음에 바루 「—혼자 보기는 아깝다—」 이런 一節이 잇는데 上下의文脈上 그것은 乳母自身이 제 肉體를 거울에 비처보면서 생각한말로 보아야 當然할것이다。

事實 나는 그걸 表示하느라고 그句節의 上下에다 「—」을 처섯다。

그런것을 金龍濟氏는 그것을 作者가 혼자보기는 아깝다 고 [illegible] 의 刊用을 해노코서 미리 準備해가지고잇는 結論을 거기다가 틀리마추어 「作者의 애로티시즘의 粉飾이요 趣味的肯定態度」云云。

이 能한 外交官이란 말이잇다 거짓말을 第一 잘하는게 第一 能한 外交官이란 말이잇다。나는 金龍濟氏가 外交官候補生으로 高文試驗을 準備하고서 文章으로 뛰어들엇슴을 그의 天才를 爲하야 못내 愛惜히 녀인다。그러데 金龍濟氏의 그能한 外交的辭令은 다시한번 發揮되엇스니 即 그의 前記改削歪曲의 [illegible] 刊用에對한 나의 鄭撤에 어물어물하다가 가로되 「그런 設植을리건 問題삼지말어라」 는것이다。

金龍濟氏여! 氏는 나의 「評界에새로운 [illegible]」이라고 顯한小文을 誤解어요 小市民作家의 疑惑이라고 햇스나 나는 決코 氏를 誹謗할 意思나 疑惑할 그런 興趣도업섯고 단지 제법 論戰까지 도 해줄 對象이 못되기때문에 眞짜 鄭撤을 햇든것이다。(完)

新刊紹介

◆時光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淸原里町 時光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錢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應募期限은 十二月十五日까지

◇短篇小說 ※※※ 賞=一等一篇 五十圓 二等一篇 三十圓
四百字原稿用紙五十枚以上 七十枚以內로하되 純朝鮮文으로 써여할것

◇戲曲 ※※※ 賞=若干篇 每篇 三十圓
三幕以內、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로하되 上演할수잇는것

◇詩 ※※※ 長短、題目隨意 賞=若干篇 每篇 五圓

◇時調 ※※※ 題目隨意 賞=若干篇 每篇 五圓

◇童話 ※※※ 四百字原稿紙十五枚以上 二十枚以內로하되 純朝鮮文으로 써여할것 賞=若干篇 每篇 十圓

◇童謠 ※※※ 長短、題目隨意 賞=若干篇 每篇 五圓

◇實話 ※※※ 題目은 후랑이에限한것으로서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賞=若干篇 每篇 十圓

◇兒童作品 ※※※ 自由畫、習字、作文

入選品에는薄謝進呈

【註】應募作品은 入選落選을 不拘하고 一切返還치아니함 보내실때는 朝鮮日報新春懸賞文藝係라고 明記할것

朝鮮日報學藝部

愛兒에의影響은어떠한가
可恐할그慘害

◇畸形兒 ◇不具兒 ◇低能兒 를낫는妻 낫케하는男便

天痴와不具兒를낫코、夫婦共히차레로 狂發해서、칼을휘둘러、사람 뭇찌르고또 는自己집에불을지르는等모든人世의悲慘 事를招來하는病毒所有者의結婚은何故로 不可한가、我醫學界의權威는 다음과가티喝破하고잇슴니다。「今 日의遺傳學에서는 病毒者의結婚은 有害한各自의病毒이遺傳子 (瘀血)가되고、重複되여서、即夫婦間의瘀血이重疊되여 惡結果 를招來하게되는때문이다」以上의말과가티狂人이되여 몸을망 치는瘀血이야말로生命의敵이니 우리들은 此慘禍에서버서나 는길을반드시차저내야할것입니다

無毒한血로 조흔子女를낫는데는

「瘀血」이如何히무서운지를 [illegible] 記症狀을나타내는데 [illegible] 그子孫에게주게되는가는 充分히前期와恐怖的罹患에乘해서 突發的으로發狂하거나 腦溢血、中風을이르켜서 卒倒하기에이르는것입니다。그러면 어떠한이가 「瘀血」의所有者인가하면 日常頭重하고 眩暈과耳鳴이 잇고 肩臂痛으로苦生하며 動悸와숨갑븜으로괴로워하고 血脈이좁고氣分이울덩거리는等의症狀이 卽그것입니다。그러데그原因은 「自慢」에잇는 [illegible] 瀉血法과 [illegible] 로苦痛하고잇섯슴니다만은 若干의副作用을同伴하는缺點이잇슴을痛感한 當研究所에서는 現代醫學을基礎로해서 이것을再檢討한結果 服用하는藥으로排泄해서 血行을調整하야 自己自身의苦痛을 [illegible] 하는新療法을 發見해서 成功하엿습니다。詳細는 「瘀血」療法의 一讀에依하시기바랍니다。

病毒이原因되여 手足의저리고압흠이只今에는

新潟縣 河島眞砂雄

(前略)病毒으로發病한當時에는 [illegible] 年春頃부터身體가비지못하고氣分이 [illegible] 가잇서서 記憶力、根氣가 [illegible] 肩臂痛等으로苦生하며 不絕히便秘症이생기기쉽고 그리고부름이나고 밤에는安眠을이룰수업고더욱이近日에는手足이저리고압허서 애를먹든것입니다……フルチ錠을服用하여더니 近頃에는몸이편해지고夜間에는充分히安眠할수잇서手足의저리고압흠도 것이덜해젓기에너무나감격하야서이러한 [illegible] 의片紙를드리는바이올시다

頭重、耳鳴、부름으로苦生하든 목은病毒이漸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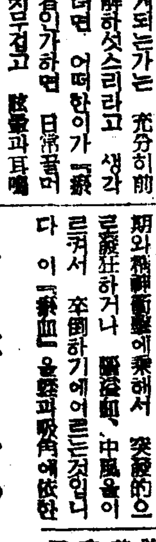
佐賀縣 千葉善藏

(前略)저는終始머리가무겁고、時로어지럽게 眩暈이나는때가 잇고 耳鳴、肩臂痛이나서 夜間에는安眠을이룰수업고、健忘症에걸리고말엇슴니다。그後는退職해서 昨年一年동안은 養生하고잇섯슴니다……フルチ錠의廣告를拜見하고사서、服用한結果、漸次頭重肩臂痛은어지지고、보기흉하든부름이적어지고 食欲도增進하고 血色도조아지게되엿슴니다、이대로가면 再次社會에나가서 열에從事할수잇스리라고 생각되여 매우로感謝하고잇슴니다。

古醫學을再檢討 (四六判美册子)

病毒排除 血液循環とふる血療法

無代進呈 葉書로申込하면 곳付送



◇이러한症狀인분은 꼭一讀하라
▽頭重、耳鳴、肩臂痛、手足이저린분(中風、神經痛)
▽動悸、숨이가쁘고、盜汗、冷汗으로苦生하는 心臟病、神經症
▽便秘症이잇나고부름으로苦生하고 不眠症잇는분(梅毒、神經衰弱)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六三八番 振替口座東京大五三〇八番

前東京吉原遊廓病院 小野原明先生發明

排毒과順血에

フルチ錠

梅毒、淋病、慢性中毒、動脈硬化、血壓亢進、心臟衰弱、半身不隨、中風、手足痺、リウマチス、神經痛、冷え症、ヒステリー、便秘

價 三十錠 一圓 … 二百錠 五圓五十錢 (全國有名藥店에잇슴)

趣味와娛樂

配給취인에서除外된 群少常設館의危機

團成社와黃金座의深刻한經營難

年末興行街의悲鳴

京城의興行界는 年末을아페노코 重大한危機에直面하얏다 群少劇場의經營難은 날이갈사록 더하야저서 그根底가 움직여고잇스니 設備가第一頹館에 지지안타는黃金座가經營難에빠저서 새資本主를濟昭神에求하고잇서서 建物主田村某와北村의高某라는配給業者와의사이에交涉이進行中이며오랜傳統과歷史를가진團成社가今年四月以來이도한經營難에빠저서 그동안起死回生의妙策을 講求해보앗스나神通한方法을 찻지못하市의 常設館을 二分하야 各各 취인을 形成하고 잇는데 前記두劇場은 이兩大 취인에 參加하지못하고 또一方 洋畫의 輸入禁止로 大作의上映을 하지 못하게 되여서 하는수업시 再上映으로 現狀을維持해나오는形便이다 設備와其他費用은 一流館의 그것과거이同額에갓가우면서 收入이적으니 여기에收支의 균형은스가맛지못하야 오늘과가튼 危機를 釀成시키고드듸어 이것이表面化하게되엿다。

이것은 將來興行界의 重大한問題로서 그根本을 正是하지안는限 危機除去는 當分間 可望이업시보인다。

空中撮影所 獨逸에出現

獨逸우파映畫會社는『크라우디아스暴風飛行』이라는 映畫를製作하기로 決定하얏는데 主演은 위리·푸릿체와 카링할드가 하기로되엿다

그映畫의撮影은極히奇拔한空中撮影인데 런던伯林사이의 旅客機內部를 스타디오에 充當시키고 撮影의大部分은 空中에서하기로되엿다。

그映畫때문에 우파社當局은르프트한사會社의 巨人旅客機와 和蘭의 KLK空輸會社의 旅客機를使用하기로되엿스나 空中스타디오에서 果然엇더한 作品이 나올지世界映畫界에 한가지 話題를 던지고잇다。

눈치빠른興行界 벌서事變後對策

뉴-쓰映畫의轉向?

눈치빠르기로 自他共認하는것은興行界이지마는 벌서 事變後의用意를 하고잇다니이야말로 놀나운일이라고아니할수업다。그런데 事變後의 興行界에잇서서 무엇보담도 제일 問題꺼리가되는것은『뉴-쓰館이 엇더케되느냐』하는것인데事變後에는 轉向을한다고하지마는 이때까지 뉴-쓰로서만人氣를끄든 劇場으로서는 一朝一夕에轉向을하기도어려운것이고 그러타고해서 언제까지던지 뉴-쓰映畫의 上映을 繼續한다는것도 그다지 容易하지아니함으로 問題의 困難한點은 여기잇는데 事變이 끗나면 곳現在의 非常編制를解除하는 方法으로는 現在와가티 各映畫館에서 다만 한개의것드림으로 뉴-쓰映畫를上映하는 不經濟를 避하고 世界뉴-쓰以外에 短篇文化映畫를 同時에 上映해서 內容의 充實을 圖하려는것인데 洋畫가 來年度에도 輸入禁止又는 制限을밧게되면 洋畫팬을 相當히 吸取하리라고 一般으로 期待되고잇다。

第三帝國의 드트리히는 賣國奴

銀幕의 明星 마레-네·듸-트리히는 最近에 이르러 마침내 獨逸의 國籍을 離脫하고 米國으로 歸化하기로되엿는데 이報道에對해서 누구보담도 제일 憤慨한사람은 獨逸에잇서서 反猶太運動의 最急先鋒 유리우스 슈트라이헬將軍으로서 이將軍을 스사로 主宰한 反猶太人 鬪爭週刊誌『데어·슈튜르머-』最近號의 紙上에 듸트리히爆擊의一文을 揭載하고 다음과가티 猛烈한 反駁을하엿다

『듸트리히가 米國으로 歸化를 決意한것은 彼女가 祖國을 背叛한 返逆者이라는것을 말하는것이다 獨逸出生의 彼女는 長久한동안 映畫女優로서 허리웃드에 滯在하고잇섯는데 허리웃드는 猶太人俳優를 만히모으기로 有名한데이다 그러니까 彼等과 交際하면서 彼女는 아주 內外로 猶太化하고 만것이니 이러한 意味에 잇서서 彼女의 米國歸化는 第三帝國에對한 重大한 侮辱이며 容恕할수업는 賣國行爲이다』

라 猛擊을 하엿는데 한편으로 듸트리히는 이러한 攻擊에는 秋毫도 介意하지 아니한다는드시

『米國은 나한테對해서 퍽親切한 나라이기때문에 歸化하기로 決心한것이예요』

하면서 그問題를매우 가볍게 取扱하고 잇는모양이다。

老役으로自處하는 라이오넬바리모아

허리웃드映畫界의 幹部俳優 라이오넬·바리모아는 今番 로버-트·테일러와의 共演으로英國에잇서서의 最初의映畫『옥쓰포-드의米國人』을 一个月半가위해서 十月中旬頃멀리 大西洋을 건너서 倫敦에왓는데 記者團과의 인터-뷰에잇서서 다음과 가튼 心境을 말하엿다。

나는 現在 映畫界의 最古女優인 메리-픽포-드와 한때에 스크린에 데뷰-하엿스니까 그런저런 제법 오래된 이야기인데 모두 나를 적게 보히도록 메키업을해서 人氣를 煽動하려고하엿스나 나는 終始 거기에 귀를 기우리지 아니하엿다。왜 그러냐 하면 나는 나이를 먹어서 늙는다는것을 조금도 무서워하지안는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 내性格으로서는 無理를해서 젊게 보히도록하는것은 到底히 견듸어낼수업는일이기 때문이다 아모리 나이를 속히고 남에게 젊게 보히도록 하려고 애를써도 내나이는 映畫名鑑에 쓰여잇스니까 세상사람이 다아는것을속혀서는 무엇하나 하는것은 바리모아의 獨斷的인리가잇서서 도리혀 人氣를 끄으럿다고한다。

廿世紀폭쓰作品 "勝興"

明治座에서上映

十八世紀의 中葉 英國노-포-크라는 港口의거리에살고잇는 十二歲의少年 죠나산、부레이크와호레이쇼 넬손은親友엿섯다。

孤兒의 죠나산은 叔母부레이크의酒場에서 給仕노릇을하고잇섯다。

그酒場에오는船員들은 어느날 金塊를실고가는배를 沈沒시키고 金塊를橫領할謀論을하는것을들엇다 그 保險業者로이드商會에서 保險을 承諾한것임을안 少年은 이事實을 百里길을거러가서 로이드商會에 알으켯다 이것이因緣으로 少年은 로이드商會의 給仕로採用되엿스나 나중에少年은成功하야 英國一의海運業者가되고 넬손은海軍士官으로부터 提督이되엿슬때 佛蘭西官戰이 布告되엿다 英國의 商船이 多數이 沈沒되엿슬때 로이드商會는 打擊을바덧다。

그數日後 죠나산은 스티씨-號에게 狙擊되고 넬손은佛國艦隊를 擊滅시켯다는 歷史를 따리르·사나크가 映畫化시킨것인데 今六日부터 市內明治座에서 上映한다。

눈! 明眸콩쿨에 當選은누구될까

世紀의魅惑인聖林話題

聖林에서만아明眸콩쿨을연다면 엇더케될까하는것을생각해본 閑人이잇는데 그리면 審査員되는사람은審査는커녕당장에 醉子해버리리라는 反擊을바덧는데 그때에 話題에 오른사람들은 다음과갓다고한다。

첫재둥근눈으로는 존·크로포-드가 斷然第一位로 갈것이고 그다음으로 端正한 눈으로는 누가 무어라고해도로자린드·랏셀의 바른편에 나서리가업슬것이며 敎養이잇는 優雅한눈으로서는 캐이·프란시스가 當選되는데 純情的이면서도 유까엇는눈으로는 진·바-카-가 滿場一致로 可決되엿다。

그러면 듸트리히는 엇더한가하는 提議가 잇엇는데 『그것은다만뿐이야하고 一蹴으로 否決되엿다든가 에로틱한 눈으로는 亦是 一般의想像과가치 메이·웨스트에게 白羽의화살이갓는데 진저·로저-스도 여기에서는 빠지기가 섧으리라고한다。

마나、로이短傳

그出世作以前과오늘의成功까지

有名한 映畫俳優치고 그가 出世하기 까지 苦生스런 經歷을가지지안한 사람이 업거니와 그가운데서 女俳優마나·로이 처럼 눈물겨운 이야기를 가진이는 적을것이다

그는 키가 버들가지처럼 길고 얼굴에는 검은깨가 한벌더 괴엿스며 머리털은 누르다못해 붉어저버리엿다。

그러나 지금그의人氣는 世界를휩쓸며 最近윌리암포-엘과共演한「그림자업는사나히」로서 움지기지못할 大女俳優로 君臨하게되엿다

그의男便은 大파라마운트社의 製作部責任者 아-사·혼니아 다

그는 몬타나의牧場에서낫는데 本名은마-나·윌리암스라하엿고 어렷때부터 카-보이들과함께 말을타고도라단이면서 팔팔엉어로 일홈을 날리엿다。世界戰爭때에 流行性感冒로 그의父親을여희고 어머니와함께 칼리포니아로나왓다 칼리포니아에서 女學校엘다녓스나 家勢가말이못되는 마-나는 발을솜어가면서 通學하얏다。學校에서는 舞踊을잘하기로有名하야 學藝會때마다 先生들과 동모들에게稱讚을 바덧다。

學校를마치고나니 집안은 그날그날의 生計가 말이못되엿다 어머니는 얼는돈을 어떠케벌동하야 그의사진을 멧장박어서 그곳에서 멀지안흔 헐리우-드의 撮影所로 가지고다니게하야 이撮影所 저撮影所-날마다 자기의 사진을들고 撮影所의門을두다리며 도라다니는것이 그의日課엿스나 어느곳에서 사진을 드려다보기나해주냐 그는하는수업시 칼바市의 MGM撮影所近處에다가 舞踊敎習所비슷한것을내엿다。그것이 지금으로부터 十四年前일이엿다 그러나 이가난한敎習所에는 弟子라고는 한사람도 차저오지안핫다。

希望은돈과함께업서저지고 敎習所는 문을닷첫다。

그리하야 날마다MGM의配役部를 차저가서 무슨下役이라도 조흐니 하나주수업느냐고 비는것이일이엿다 그러나配役部에서는 어少女를 밋친사람對接을할다름 그의願을드러주지안헛다。

그때 춤추는 엑쓰트라들을 募集하는 機會가 도라왓스나 그것도 노치고말엇다 지금은 돈도 한입업시 거리를 彷徨하지안호면 안되게되엿다

그로부터數個月後 이少女에게는 天佑의機會가다치엿다。

그러나 스크린 테스트를맛치고나니 製作者는 그를無視하고 말엇다。

이때에는 映畫界에 원실라 불의일홈이 流行하얏다 하다못해 일홈만이라도 가라보자하고 지은것이 마나·로이엿다。이상한 일이엿다。

이일홈은 東洋的리즘을 가지게되엿스니 이것이 因緣이되여 찰포링의『黃金狂時代』의 푸로로-그의 딴서-로서 出演하게되엿섯다 여기서 二週日間의딴서-로 出演한賃金이 겨우면弗 손에 드러오게되엿다。

이때에 그곳의 寫眞師한사람이 어떠케 이女子의 舞踊포-즈를 박어가지고 硏究寫眞으로 만드러가지고 展覽會에 出品하얏다。

이사진이 그에게幸福을 가저왓스니 그當時의 名優바렌치노에게 發見되엿다。

밤이되자 出演中에 바렌치노의 訪問을 밧게되엿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幸運이엿섯다。當時世界的名俳優 바렌티노의 訪問을 밧고 그와그의 夫人나타샤의 好意로 映畫에出演하게되엿스니 바렌티노의 主演한『몬타나처녀』에 東洋女子의 役을 맛게되엿다。

그리고『美의價値』에 重要한 役이도라와다。

그로부터 五年間마-나로이는 支那女子 馬來女子 印度等 全部東洋女子의 役을 마타보앗스므로 그동안에 自己도 모르게 東洋風의 演技로 固定이되여버리엿다。

그리하야 그는 이固定된演技에서버서나라고 애썻스나 좀처럼 꼿처지지안햇다

그러든차에 워리암·케이하-바드는 그의 野心作『大西洋橫斷』에 마나·로이를 貞淑한코-카사스女子의役을 맷겻다 거기서 成功을하야 겨우東洋風의 固定된演技에서 解脫할機會를어덧다

그뒤에『成吉思汗의假面』에서 妖婦役을맛고 그뒤에 몽고메리의映畫에서 百퍼-센트 아메리카女子의役이 도라왓다

그리하야 라몬나바로의『野蠻人』에서 英國女子의役을 마친뒤 MGM과 長期契約을 하게되엿다

꿈에도 잇지못하든 MGM撮影所-그는 配役部의 쇠대구녕으로 드려다보면서 눈물을흘렷다。

十年前自己는 얼마나 여긔대구녕을 드려다보앗는것이냐?

그리하야『그림자업는사나히』에 出演하고『에스카-베트』의 役에 너무나 外國的이니 다른役을 달라고 조르다가 안되여서 問題의『마-나로이歡洲逃避事件』을 이르키고 그女子의代役을 루이제라이나가 하게되엿다。

(사진은마-나·로이와 그의夫君)

오디라

六日(月曜)

◇午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市況『支那事變과列國의貿易』 李 晶 燮
◇同七時四〇分 國民精神總動員講演週間『朝鮮의將來』 總督府學務局 姜 元 秀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 軍艦行進曲 東明合唱團 指導 李 升 學
◇同八時二五分 一、朝鮮歌 二、平壤歌 朴 玉 姬 尹 一枝紅
◇同八時四五分 大笒獨奏 一、淸聲자진한닙 二、平調會相 金 永 根
◇同九時 連續野談(第一席)『偉大한기침』 申 鼎 言

七日(火曜)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丈거리 洋琴 金 德 鎭 大笒 方 龍 鉉 細笛 韓 成 俊 杖鼓 池 龍 九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무명과비단染色이야기」(二) 裵 祥 明
◇同六時 唱歌와이야기 一、唱歌 1、佛の子供 2、聖きみ國 3、感謝の歌 和光敎園兒童 伴奏 車 賢 淑 二、이야기「부처님」 李 鍾 光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想像力에對하야』 金 東 仁
◇同七時四〇分 國民精神總動員講演週間『朝鮮商業界의 發展策』 和信社長 朴 興 植
◇同八時一〇分 聖劇 "出家前날" 悉達太子…裵成戟 淨飯王…朴齊行 波闍波提夫人…馬瑚 耶輸陀羅妃…卜惠淑 優陀夷…盧詞男 具波 車匿…金相基 龍導…洪石年 侍女…黃鳳玉 羅睺羅…洪彩娥 明 星 會 案及指揮 洪 露 雀 効果 朱 光 海
◇同九時 連續野談(第二席)"偉大한기침" 申 鼎 言
◇同一〇時三五分(東)英語ニユース
◇同一〇時四五分(東)支那語ニユース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城)輕音樂
◇同六時 (//)스케치드라
◇六時二五分 (//講演)
◇同七時三〇分 (自天津)
◇同八時 (城)二曲
◇同八時三〇分(東)長唄
◇同八時五〇 (//)物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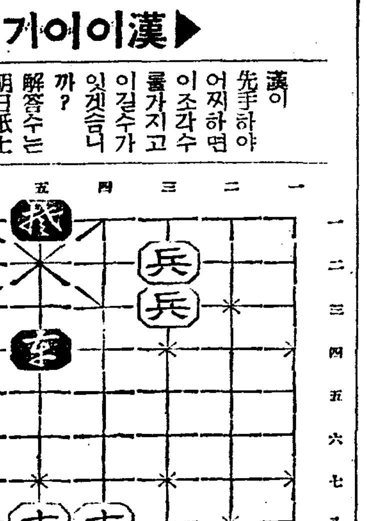
田中路子와 雪洲結婚

【巴里三十日發同盟】一九三一年 외의커피王마인드氏와 結婚해서 當時樂壇에큰 話題를던진 소프라노歌手田中路子는 年齡의相違와其他事情으로 三個月前國際結婚을解消하고 일직부터룸설이도든 俳優早川雪洲와 近者結婚하기로 되엿다 雪洲의 渡佛第二回作品(巨-토)가 目下巴里에서上映되면서잇는이때 이야기는 巴里社交界在留邦人새이에 非常한評判이되여잇다 두사람사이에는 今春問題의映畫(요시하라)의撮影에

◇博譜大集 51【問題】

漢이어기는수

漢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슴니까? 解答수는 明日紙上에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풀어 보십이오 (博譜係)



ラシヤオーバー大奉仕

オーバー寸法 片前 胸囲二尺八寸・二尺九寸・三尺 三尺一寸
裏付=紺色と黑色あり
二六號 片前型 兩前型 一着 金八圓六十五錢

高級ラクダオーバー

紺と茶色あり

二八號 片前型 兩前型 一着 金十四圓八十錢 金十五圓五十錢

紳士用 兩前オーバー

色合は 茶・鼠色 背中年向
三二號 兩前型柄オーバー 一着 金十三圓九十錢

朝鮮オーバー大見切品

紺色に限る 一尺九寸・二尺
三五號 特製ベロアー 十二圓五十錢賣を特に 一着 金八圓五十錢

ウーステット三ツ揃背廣服

寸法は大・中・小型あり 特大型一割高
色合 茶紺・背中年向 柄は斜線又は縞柄
一〇號 三ツ揃 一着 金十三 八十錢

星印 本毛厚サージ三ツ揃背廣服

別仕立最高シルバー裏付 黑・紺あり
一七號 三ツ揃 一着 金十八圓八十錢

紳士 スポーテックス 三ツ揃背廣服

色は 茶・鼠・紺色あり 萬人向の無地柄
二三號 三ツ揃 一着 金二十圓五十錢

特製黑セル詰衿上下服

三一號 三ツ揃 一着 金二十圓五十錢

玉錦絲コール天特製學生服

仕立入念裏付の金ボタン付なり
十九號 詰衿上下組 一着 金六圓
廿二號 詰衿上下 一着 金八圓五十錢

玉錦コール天作業服

尺一 一年用 一圓九十五錢 金ボタン付長ズボン付上下一着 二圓八十五錢
尺二 二年用 二圓二十錢 尺五 六年用 同 二圓四十錢
尺三 三年用 二圓四十錢 中學生用詰衿小型 同 二圓七十錢
尺四 五年用 二圓六十錢 同 中型 同 大型 四圓

青年團服と軍靴の奉仕特賣

大折詰ダブル衿 同 中 値 小 衿衿衿
寸法は 大・中・小共に同値
特價 上下服 一着 金三圓八十錢 ダブル型・バンド無
長乘馬ズボン付 二十錢高
寫眞ダブル衿

國防色スレン生地
特製團服 一着 二圓四十錢
コンノート型 帽子 個 三十八
戰鬪帽子 個 四十三
軍人型帽子 個 四十三
卷ゲートル 打 三圓五十

特製訓練靴

耐久完全無敵品 一足 四圓十錢
文數は十文より十二文迄同値 御指定下さい

御注文は葉書にて、送料は御買主擔
名古屋千種區 今池電停前 合資會社 加藤營業所
振替名古屋二八九番

山高水長! 해는가도 文化는永遠하다

京城太平通一丁目一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李光洙著 愛慾의彼岸

(最新刊)
定價一圓五十錢 (四六版美裝·書留送料二十九錢)

朝鮮日報에 連載되여 百萬讀者를 울린 春園一代의 名作이다。사랑과 純情의 거리에서 헤매고 다시 愛慾의 괴로움을 넘어 人生의 새 소리를 찾는 一人生의 苦悶과 不義、正義와 悲德의 갈림길에 人生의 行路를 그려내는 것이 곧 本書의 主人公 美先生의 生涯와 熱烈한 純情에 느끼지 않을 수 없다。紗幕에 싸여있는 讀者가 本書의 純情無垢한 眞實을 발견하여 주시라! 單行本으로 나와 여러분의 机上을 기다리게 되었다。누구나 이 冊을 보라!

靑春과人生의聖書! 春園一代의名作!

鷺山 李殷相著 耽羅紀行 漢拏山

定價壹圓二十錢 書留送料十九錢

秘島濟洲島의闡明! 鄕土愛의純情的風土誌!

耽羅島는 茫茫한大洋中에 一片의荷葉과가티 떠잇는 千年의秘島이다。崔峨한 漢拏山은 雲霄에 놉피솟아 北으로 白頭山을바라보는 極域의 兩大支柱이며 三姓穴에서 시작하는 가지가지의 神話는 讀者에 어린채로 西歸浦의 갈매기노래와함께 항상 우리의꿈을이끄는 千年의 夢鄕이다。이러한秘島 이러한夢鄕에 일직이 足跡이 미친詩人墨客이 만컷마는 우리의 山水詩人이며 風土學者인 鷺山 李殷相氏가 지난여름에 朝鮮日報主催의 漢拏山探勝團을 거느리고 다녀와서 偉大한 붓으로 耽羅紀行漢拏山을 朝鮮日報紙上에 실으매 그明麗纖細한 筆致가 鄕土愛의 細情을 노래할때는 보는사람의 心琴에 저절로 울리고 該博한考證으로 史話民俗을 이야기할때는 前典에없는것도 闡明되여 진실로 이 一篇은 古島名山에對한 珠玉가튼抒情詩인 同時에 人情風俗에對한 浩瀚한 風土誌이기도하엿다。이제 이 珍重한文字가 한卷의冊으로 登梓되여 讀者아페나가니 이冊한卷으로써 우리는 안저서 耽羅秘島를 샅샅이알수잇슬것이다。(鄭芝溶讀伯評書)

現代朝鮮女流文學選集

空前絕後歷史的絢爛版
朝鮮女人文化史上 金字塔 (定價一圓 送料二十二錢)

執筆者氏名 (가나다順)

姜敬愛、金末峰、金午男、金慈惡、盧天命、李善熙、毛允淑、朴花城、白菊喜、白信愛、張德祚、張貞心、張永淑、朱壽元、崔貞熙

朝鮮에 新文化의길이 開放된以後 女流의손으로 文學을創作하야 世人의耳目을 끄을어오기도 이미 十有餘年、이제와서는 오히려 聲聲男子를 凌駕하는곳에까지 이르럿다。才華와 實力을 具有한者 十數人의作品을 選拔하야 女流文壇의第一期의消算을 보이는 意味에서 이一卷書를 刊行하는 바이다 絢爛한 五色珠玉을 色絲로꾀인듯한 아름다운 이책은 滿天下讀者의 熱狂的愛讀을바드고야말것을 確信하고잇거니와 果然朝鮮의 文學的 發展相도 이 一卷으로 엿볼수잇다

特製美麗裝幀 그라벼야寫眞版 十五枚入 總三百五十頁 豪華版

世界傑作童話集

새해선물로 이 어엽븐童話集을 드리십시오 아름다운 그림도만소이다 新年파하게 보내는 이貴重한 선물을 사랑마다바러서 隔神의 기쁨진糧食을 삼아주기를바라다

文壇十五大家責任執筆 定價八十錢·送料十六錢

內容目次

日本篇 (張赫宙) 一、혀끗는참새 二、『빠안베』『반안베』
中國篇 (朱耀燮) 一、어부와물귀신 二、바보국수장사
米國篇 (徐恒錫) 一、호도까는난쟁이 二、고래와코끼리
印度篇 (李殷相) 一、마라니와파랑새 二、애기원숭이들
佛國篇 (李軒求) 一、구두신은팽이 二、『벨르』와도까비
西班牙篇 (桐致眞) 一、조고마한새 二、귀신이야기
英國篇 (白石) 一、꽃씨 二、부대안의고기
愛蘭篇 (金珖燮) 一、신선나라구경 二、伯爵夫人과靈魂장사
土耳其篇 (朴龍喆) 一、보배거울 二、술곰의새
露西亞篇 (咸大勳) 一、게와啄木鳥 二、兄弟
亞弗利加篇 (蔡萬植) 一、아흡재人形 二、넘어다니는木馬
獨逸篇 (異河潤) 一、두더쥐 二、의인박사
和蘭篇 (金晉燮) 一、조고만유리구두 二、삼백예순여섯어린애를가진여자
丁抹篇 (李甲燮) 一、큰놈쇠와작은놈쇠 二、입큼의새옷
朝鮮篇 (田榮澤) 一、콩쥐와팥쥐 二、흥부와놀부

李光洙著 그의自敍傳

春園 李光洙著

朝鮮日報紙上에 連載되든 春園 李光洙氏著 長篇小說『그의自敍傳』이 刊行되엿다。이小說은 作者에게잇서서 가장意義잇는 作品인것은 毋論이요近世朝鮮의面貌가 이小說을通하야 如實히나타나잇는點에서 朝鮮靑年은 누구나 읽어둘必要가 잇는줄안다。그는 果然 무엇을 말하고 또한 告白햇는지 자세히들으라 이책이야말로 春園이아니면 쓰지못할 獨特한作品이다

四六版堂堂五百頁 定價一圓三十錢 書留送料十九錢

朝光

特價五十錢 送料本社負擔

朝光新年號는 新年號인만큼 淸新한 內容으로 編輯되엿슬뿐아니라 每號刑刷附錄인『朝光』『라임스』以外에 特히『鄭圃隱先生誕生六百年記念誌』라는 百二十頁의 單行本을 添呈하기로한다 新年號가 絕版되면 記念誌만 定價五十錢이될것이니 時期를 일치말라。

女性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女性新年號는 結婚一年生 座談會記事를 비롯하야 實益的이오 재미잇는記事가 滿載하야 前에업시 自信잇는 編輯이되엿다。그우에 量으로도 數十頁를늘리어特大號로 提供하면서 定價는從前대로二十錢이다

少年

定價十錢 送料一錢

少年新年號는 朝鮮少年 少女指導에 다시엄는 좋은 敎材로엇는다。노래、이야기、常識、趣味무엇이든지다사랑하는子女에게 마음노코 읽힐수잇다。더구나 평소보다 數十頁늘려 特大號로 提供하면서 亦是定價는 단十錢이다。

中部版

各分科會意見綜合 十大建議案議決

產業調查委員會에서總督府에提出할 京畿道"產業是"의根幹

지난구일상오에 제일회경기도산업조사위원회를연이후 그동안 농업(農業) 림업(林業) 수산(水產) 공업(工業) 상업(商業)의 각부분과회를 여러차례로 열어 각분과회의제출의건을 결정하엿거니와 작일오후한시부터는 경기도회의실에서 제이회산업조사위원회를열고 분과회주사의보고가잇고 당일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총독부의제출할의안을 의결안으로서 경기산업시(產業是)가 결정되여 정치적경기도로부터 산업적경기도에의 비약에 박차를가하게되엿다 이날회의에는 감사(甘蔗)지사가 의장이되고 농업부에는 곡다희마(谷多喜磨) 림업부에는 한상룡(韓相龍) 수산부에는 길전수차랑(吉田秀次郎) 공업부에는 하전직치(賀田直治) 상업부에는 이삼명치(伊森明治)씨가 각각주사가되여 위원사십여명이 출석하야 다음의오분과의 여심상대의결과 총독부에제출할 십대건의안을 결정하엿다

▲農業部 一、指導員의充實 二、蔬菜의自給 三、甘藷의栽培增殖 四、棉花增產 五、小麥增產 六、養蠶業肥의普及增進 七、畜牛의增殖 八、緬羊의增殖 九、乳牛의獎勵 十、農事試驗研究機關의擴充

▲林業部 一、用材林의造成 二、薪炭林의整備改善 三、山村經濟의振興 農林產物의 販賣斡旋과 統制

▲水產業部 一、魚貝藻類의增產 二、干潟의增產 三、沿岸漁業의振興 四、遠洋漁業의發達 五、漁港及避難港의修築 六、漁村의振興

▲商工業部 一、商工指導機關과 貿易館의設置 二、工業技術者養成施設 三、工業用水、燃料等의 試驗及調查

▲總督府에建議事項 一、工業組合 二、商業組合 三、金融機關損失補償制度 四、仁川港을 大貿易港으로 擴大强化할것 五、京仁鐵道의 複線化와京仁產業道路及工業用上水道의 實現 六、海外直通航路 七、永登浦의郵便所의 昇格과 市內電話制度及京仁電話網의增設 八、電力豐富와電源의開發 九、金融의疏通 十、京仁地方에 商業倉庫를設置

年賀郵便取扱 臨時雇는不募

【仁川】금년은 여러해의 년하장을 폐지한다함은 누보한바와갓거니와 인천국에서는 금년년하장 일부이상만매의 정형을 예상하엿다는데 금년은 최소한도로 인적방면이 변하가 오십만매도 내지(內地)만주(滿洲) 기타로부터 도착할것이 최소만매의예상을하엿다는데 금년은 특히외부로부터 임시고인(臨時雇人)을 아니쓸터이라는데 이에대한의국원총로 주야겸행을하리라한다

벼이삭주어獻金

【金浦】김포군 군내면 장기리(金浦郡內面長基里)일신강습소(日新講習所)생 학생일동은 지나사변이래 정조석가지는 틈틈히 국방헌금을 위하야 각방면에서 총후의 성의를다하든바 이번에는 벼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팔아 현금으로 주어모아서 헌금할것을 결의하고 지난이일에 김포군청에 기탁하엿다고한다

十一月中仁川貿易 二千萬圓을突破

比前年同期二百萬圓增

【仁川】작년도에 무역액 이억원을 돌파한 인천항의무역은 그야말로 비약적발전을 보혀주어 사변중에 북지무역이 다소격감한 금년에도 지난십일월 무역액이 이천이백삼십일만구천백륙십구원에 달하야 전년동기보다 이백삼십칠만칠천 원이 증가를 보혀주엇다는바 그자세한 수자는 다음과갓다한다

〇十一月中仁川貿易額

十二年度	
輸出	一、四二六、七二八圓
輸入	一二五、六二三圓
移出	一三、三五二、三四一圓
移入	九、二七〇、三七五圓
合計	二三、三一九、一六九圓
十一年度	
輸出	八〇三、七三七圓
輸入	一、五四八、四五二圓
移出	一三、三五二、一八九圓
移入	六、四〇〇、八三六圓
合計	二一、九四一、六五九圓
比前年	二、三七七、六二六圓增

冊四旅團長田路氏 洪川에서時局講演

【洪川】삼십사려단장 전로조일(田路朝一)

屠殺數도減少 仁川의事變影響

【仁川】사변이발생한이래에 그영향은 상당하게느는곳은 각급상계에까지파급되야 일반적으로미치는영향이 적지안흐나 어제도수장도살수에대하야 조사한바에의하면 금년사월부터 십일월까지 팔개월간 도살수는 도야지 이천구백오두 소가 이천삼백사두에달하야 작년동기에비하면 도야지에잇서서 이천오백십삼두 소에잇서서 여백십사두의 감소를보혀 역시 사변의영향을 증명하고잇다한다

西氷庫渡船場 賣票徹底施行

【京城】서빙고 도선장(西氷庫渡船場)은 경성、용인、광주、세류(京城、龍仁、光州、細柳)등과 우마차(牛馬車)의 통로로 대교통을 일우어 도선비난이 만어서 이것을 완화키위하야 지난달부터 오배여원이 기편부로는 도선장을 나타내고잇다하며 따러서 우선까지는 도선표를 지난 일일부터 매표(賣票)를하야 동서빙고정(東氷庫町)주민에게는 무료로 도선하게된것이 매표실시로부터는 누구나 물론하고 매표키로 되엿다한다

十六名을태운 發動船行方不明

大成島에서仁川航海中遭難 仁川署에서各地에手配

【仁川】선적을군산부(群山府)림경(林慶)상점에는 중유(重油)발동선삼중환(三重丸)은 지난삼일오후삼시경황해(黃海)대성도(大成島)를출발하야 월비도(月飛島)에일으는 도중에 풍파를맛나어 대로이지 행방불명이되엿다는데 동선박에는 선원삼명 승객십삼명 합십륙명의승원이잇서서 조란과한가지 승원십륙명에대한 안위도 염려되나 전연그행위를알길이업서 각방으로 수배하야엄탐중이나 종적이묘연하다한다

本社伊川支局長 時局巡廻講演 東面에서盛況

【伊川】금번이천지국에서는군내 일반국민에게 시국에대한인식을 철저히주며 농촌진흥상만전을 다하고자 본사이천지국장김응명씨를 초청하야 군내각면에 순회강연을 위촉하야 지난이십일일에 동면에출장하야 월암공보교(月岩公普校)에서 생도들에게 대하야 시국에대한강화를 한시간동안하고 이어서 저녁일곱시부터 월암공보교강당에서 청년단장리석면(靑年團長李錫冕)씨의 개회사와 본사이천지국장의 소개를 한다음 김지국장이 동간하야 시국과농촌(時局과農村)이라는 연제로 오백사십여명의 청중에게 대하야 한시간동안 강연이잇서 동면일반면민에게 철저한 인식을주엇스며 특히 동면인사들의 본사이천지국장의 순회강연의기회를 리용하야 예정일홈에서하로를더연기하야 지난일일 오후두시부터 월암공보교에서 동면내 오백여부인들에게 생활개선에대하야 한시간동안 강연이잇섯는데 동면에잇서서는 처음되는 성황이엇다고한다

勞働하야버른 勞賃을獻納

【楊平】양평군 갈산면 오빈리(楊平郡葛山面梧彬里)

금하는것이니 비상시국비로 써달라는 정성이 넘치는 신청이엿는데 이를접수한당국에서는 그의특지에 감격함을 마지안는다고한다

仁川火災減小 損害는萬餘圓

【仁川】매년동기를당하면 불의에 화재에당하야 적지안흔피해액을계상하고잇슴은 자타가공인하는

鷄卵도五割增產 京畿道에서積極獎勵

경기도에서 지난사월부터 시월까지 칠개월동안에 공동판매한계란(鷄卵)은 오만일천이백삼십구판으로 작년동기에비하면약 배나증산되엿스나 아직도 수요에는 완전한공급을 하기어려운상태이여서 다른곳에서 가저오는형편이다 그런데이를 돈으로 환산하야보면 한판에 이원사십전표준하면 십삼만일천칠백삼십삼원팔십전인데 작년동기에 비교하면 그가격에잇서서도 약오할가량이늘엇다 이와가티 경기도는 경성 인천가튼 소비적 대도시를 가지고잇스므로 아프로 계란의 수요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작꾸늘어갈것이 명백하야 경기도당국에서는 아프로 계란의 증산에 크게 노력할터이라 한다

京城府의淸掃工作

쓰레기桶은門안에두고 집周圍를掃除하라

下水溝는덥고 수채는물이잘빠지게改善

實行안하면罰金또는科料

도시청소(都市淸掃)가 그도시의 위생 시설과 보건사업의 기초인것에 비추어 그동안 중요문제로되여잇던 오물소제령(汚物掃除令)이 드듸여 지난 시월일일부터 시행되여 도시청소상새로운 기원을 지은것은 기보한바이어니와 이법령이 실시되기는 하엿스나 이법령에의한 모든소제의무와 시설과 그제재등이 즉시로 일제히 실행될수는업는 형편이어서 그동안 경기도위생과에서는 각서를통하야 변소(便所)、수채、쓰레기통 모든방향을조사식히면서 점진적으로 그실행을 독려하고잇든것이다 수일전시내 본정서를비롯하야 이번 법령의 적극적 실행에 들어가고잇다 이법령에의하야 특히쓰레기통은 소관경찰서장의 승인을밧는것을 빼고는 모다자기집 안에두기로 되엿고 도로에면한 장소에 못두게 되엿스며 사인(私人)의 소제의무를 다음과 가티정하엿다

一、거주지역과 송유지역내를소제할것
二、하수구를 맨들것
三、하수구에 맛는변소를 맨들것
四、쓰레기통을맨들것
五、소제한 쓰레기와 매회(煤灰)는 각각용기안에 수집할것
六、오수(汚水)를 처리할것
七、오물이 일정한량이상으로 나오는곳에는 소제의무자자신이 오물을 운반할것
八、전염도료의 소제를할것

만약 이의무를 리행하지안는경우에는 각각그종류와 정도에따라 흔은 백원이하의 벌금이며 구류과료에 처하도록되여잇다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것은 리행해야만할것을 리행하지 안커나 또는불충분하게하엿다고 인정될때에는 경성부가 대신이를 시행한다음 그시행에 요한비용을 의무자본인에게서 징수하게되여잇다 그럼으로 가령셋집의수채가 하수관(下水管)으로 흘러내려가는 경우에 그공동하수관이 맥히엇을때에 거주자의 인심이 나뿐때에는 누가먼저 고치주도록 내여버려두고 잇서서 정직한 한집 흔은두집만의 비용으로 그하수관을 고치는경우가만흔데 이런때에는 의하야 당연히 그비용의 한목을 그홈리한대만자가 물수박게업게되여 대단리리하게되엿다

開城府民의熱誠

獻金과慰問品一束

【開城】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판사 산중충태(山中忠太)씨는이번 국방기재비(國防器材費)로 원——또 휼병금(恤兵金)으로 원을 각각개성부청을 통해 헌납하엿다한다

二、개화관(開和館)주인하옥창작(河屋昌作)씨는 휼병금 백원을 개성부군사후원련맹(開城府軍事後援聯盟)에 기탁하엿다

三、부내원정공보(元町公普)급개성공립소학교(開城公立小學校)대화생들은 직업지도의 일단과 생업보국의 정신함양으로 근로애국을 도게하엿든바 여기서 어든이수익금전부를 국방비로 개성부청에 헌납하엿다는데 금액의내역은다음과갓다

一、元町公普校=十五圓二十八錢
一、小學校高等科=四圓十錢

一、개성부군사후원련맹에서는 개성부내서 북지방면에 출동중인 송본진소위(松本晉少尉)외십일명용사에게 대해서 술조끼급아동재작의 위문작품과 위문도 회등을 소포우편으로 발송하엿다한다

回甲費節約 五十圓을獻納

【溫水】강화군 길상면 온수리(江華郡吉祥面溫水里)에 사는조복래(趙福來)씨는 지난삼일길상면사무소로 일금오십원을가지고와서 약소한금액이지만 국방헌금으로 보내여달라고 부탁하얏는데 이것은 금년이 자기의회갑이나 그비용을 절약하여 헌납한것이라 한다

朝鮮日報讀者優待割引券

時日 十二月九日午後六時半
場所 府民館
(一枚一人限)

本報讀者에게는三十錢以上에一割、五十錢以上에一枚
森永밀크초코—레트、

主催 森永製菓株式會社
後援 朝鮮日報社

長篇小說 花冠【119】

李泰俊 作 金奎澤 畫

아득한봄 (三)

「네?」

동옥은 두번째 다 못하여 대답해준다。

「동옥씬 왜 여기두어 엇지 십니까 하필」

「왜 하필이야요?」

「좀더 큰 사업을 하실수 잇지안습니까?」

「……」

동옥은 어니전은 생각에잠자코만다。

「서울로 오십시오 무슨사업이던지 하십시오 제가 동옥씨가 청구하시면 큰자본은 몰라두 이삼십만원가든건 언제던지조달해드리겟습니다」

「……」

「제가 돈을 냄다구 무슨 간섭을 한다거나 그런 혹히 저희들이 하는 애부는 안하겟습니다 다만 동옥씨의 최대의의를 다

하고시픈것 뿐입니다」

「……」

「이런데서 넘어 만드러논 기관에서 일게 사무원의 존재로 동옥씨가 게시건 전 여간 애석치 안습니다。모든사업에 게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 진력해 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전 아직……」

하면서도 동옥의 머리 속에는 진작부터 우선 금순을 위한 구십원이란 돈때문에 정신이 어수선해지는것이다。

「실례올시다만 동옥씨 자신은더 공부허구프진 안흐십니까?」

「별로 생각지 안습니다」

일현은 그제야 아까 꺼내엿던 담배에 불을 부친다。동옥은 담배연기를 피하는것이 더 아니꼬와진다。둘러 다 잡혀 딸이 업는데 멀—리 바다쪽에서 뚜우—하는 기선소리가 울려왓다。

「아마 뱃소리죠 저게?」

일현이가 조심스럽게 동옥을 처다보며 뭇는다。

「그러가봐요」

「뱃소리! 동옥씨 여행 조하시니까?」

「……」

「세게일주 게론거…… 일현이구라파를 휘 돌아오구 싶은지안해세요?」

「글세요」

하고 동옥은 일현의 눈에 연하게 비웃는다。일현이가 치근치근하게 굴스록 동옥은 그에게 단돈 구십원이라도 달라

는힘이 나와지지 안는다。속으로 일편에게는 단념해 버리고 어서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가 시작되기전에 목사님한테나 의론해보려

「저 좀 어되 가려던길이에요」

마악……

하고 시게를 본다。

「그러십니까?」

하더니 일현은 할수업시 열어선다。

「언제 서울 오시니까?」

「봐야겟습니다」

하고 동옥은 한결가려 작정케말한다。

「동옥씨도 인천 화생시립의와다르니 무슨 사업이시구 시든지게시면…… 뭐 저가든 사람에의견이야 도아드릴 뭐 잇겟습니까만 돈자에 편한계획이의것 봐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과자올시다 번번히 못 한니다만」

동옥은 밧고십지 안엇스나 일현과 더 여러말이 오고가겟기에 잠삭코 그가 방안에 드려놋는대로 내버려두엇다。일현을 보내고 동옥은 과자상자는 끌러보고싶지도 안허서 그냥 금순을 다리고 예배당으로 갓다。목사님도 만나보고서 양부인도 다 만나보앗스나 거어 절망이다。더구나 주일날이라 내일 꼿 갈는다 하더라도 어되서 구십원씩 모게돈이 나올데가 업섯다。동옥은 그냥금순을 다리고 주일으로 돌라올때는 여간 마음이 죄이지안앗다。아직 머럿다。정거장으로 나가면 어떠면 배일현을 다시 만날것도 가런다。그러나 다시 만난다고 돈말이 나올것 갓지는 안앗다。점심을 먹으며 최후로 서울 오빠한테 전화를 걸고 의논해보리라 생각햇다。점심을 금순이와 가티 먹어도맛이 업다。금순이도 저 혼자더 먹지 안는다。그래 동옥은 배일현의 과자상자를 끌럿다。끄르고보니 속에는과자뿐이 아니엇다。바지갈문다는 훨신 큰 새까만 가죽갑이 나왓다。열어보니 빤짝빤짝한 유리알통이 라원형으로 둥글고 조그만 손목시게엿다。

「시게! 이게 백금일가? 여게 금강석을 아닌가?」

자세히보니 「다방」이란 서양회사의 시게일뿐아니라 뱃쪽에는것같은 우리 갓치는 안라。

仁川支局電話開通 電二九〇番

寒氣의長期抵抗에 備한家庭의城砦
丸善の優良毛布
(A) 極小量의羊毛代用纖維를 混紡한 實用品 ¥ 12.30 送·38
(B) 優良한 原料를 精選한 純毛毛布 ¥ 16.10 送·79
(C) 全體에淡彩를配列한一枚布 ¥ 10.70 送·79
京城府本町二 丸善
MARUZEN MARUZEN MARUZEN

見本進呈
新發賣世界的發明ゴールデン金ペン付エボ軸高級萬年筆實物宣傳을爲하야 一名一本限
申込先 東京市中野區本局備通り 紀伊國屋宣傳部

皮膚 チャージ 차—지
◎顔面手足거츠름指間무좀股間습승
◎근질근질한皮膚病에곡한병만쓰면 영낙업시完治됩니다
定價 卅錢、五十錢、一圓
東京 山崎帝國堂

リリヤン 文化ヤン 재봉실 끈수실 푼수실
실제조 首陽店
京城仁寺町七六 電話光化門一一六五 振替京城一七四八三

肋膜病專門 海雲內科醫院
京城貫鐵町二八(鍾閣後) 電話光二三八六番 醫師 李圭暐

藥治淋特效藥治淋特效
G-U 사이드 지유
入荷濟!!

朝鮮日報

號外

昭和十二年
十二月七日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韓命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昭和七年十一月卅日 第三種郵便物認可)

大校場、紫金山占據
南京陷落目睫間

【上海七日發同盟】南京은이미 三方으로부터 包圍되야落城은 目睫間에迫到되엿다 溧水로부터 北上한左翼千葉、山田等部隊는 六日秣陵關을넘어 叉路에到達하야 雨花臺를迫하고 右翼의句容으로부터 南京杭州街道에沿하야 西進하는 瀬川、大野部隊는 麒麟門의難關을突破하야 紫金山山麓을 進擊、그리고 其中間을金壇으로부터 長驅進擊한 脇坂、下枝等部隊는 高橋門의 難關을 突破하야 大校塲飛行塲을 占據하야 바야흐로 南京城壁을 指呼間에두고迫到하엿다 陰曆 四日에 弦月은이미西山에 숨고깨끗이맑은 夜에我工兵隊의 掩護砲擊砲聲이 殷殷히겨울밤의 寒空을울리고잇다 各部隊는 城內에遁走한 敵의뒤를쪼차 高十五米의 城壁을指目하야 最後의進擊을 繼續하고잇다、大湖南北兩岸으로부터 長驅南京을 指目하고 進擊한 我部隊將士는 入城을 目睫에압두고 意氣軒昂하야잇다

敵大部隊後退開始

【上海六日發同盟】句容及秣陵關의 一戰에서 多大한犧牲을내이고 쉽사리깨여진大部隊는 東方及東南方으로부터 軍工路에沿하야 南京城內로 殺到하여왓다 南京衛戍司令에서는 戒嚴令을布告하야 艱辛히 城內의 治安을保持하고잇스나 大部分은對岸浦口로 向하야 後送되고 그리고 蔣介石의親衛隊 第三十六、第八十七、第八十八의各師의 一部도 今日夕刻夜陰에乘하야 對岸으로 後退를開始한 模樣이다

南京落城迫頭로
蔣夫妻撤退를決意

【上海六日發同盟】落城을 寸前에압두고 蔣介石은 宋美齡夫人과 同伴하야 親衛隊若干을 引率하고 南京撤退를決意한듯하다 蔣夫妻의落都는 七日未明或은 早朝頃으로觀測된다